

2021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책임연구원

김상만(대전변동중학교 교육복지사)

공동연구원

김은영(대전화정초등학교 교육복지사)

이윤경(대전옥계초등학교 교육복지사)



발 간 사

2021년을 마무리하며 복지 현장의 여러 연구 성과물을 모아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 민·관·학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 연구공모에 선정된 6개의 연구 과제는 현장 중심의 연구 성과를 복지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자활사업 생산물 판매 현황 분석을 통한 판로 개척 방안 연구',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사람중심 치매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코로나19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의 연구과제는 연구자들의 각별한 노력 끝에 현장 기반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보다 구체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대전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전시가 복지 선진도시로 한걸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 수요에 맞춰, 각각의 주체가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장 및 학계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유 미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문제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팬데믹과 아동	7
제2절 코로나19와 아동의 실태 현황	11
제3절 코로나19와 아동복지서비스	16
제3장 연구방법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대상	23
제3절 조사도구	24
제4절 자료분석	26
제4장 연구결과	27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29
제2절 재난과 아동권리	30
제3절 재난과 아동 발달	51
제4절 코로나19와 아동의 적응	55
제5절 재난과 아동 정책	61
제6절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지역사회	63
제5장 결론 및 제언	65
제1절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의 삶	6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5
참고문헌	77
부 록 : 설문지	81

표/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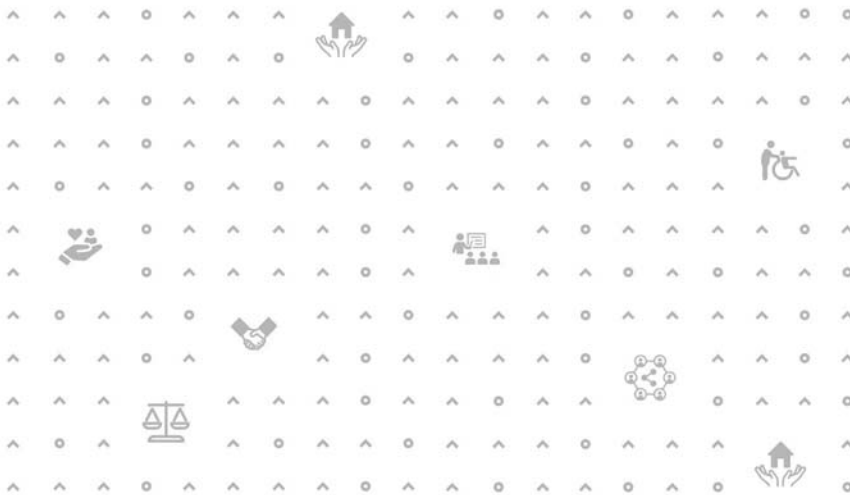
<표 2-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0년 6월 28일 발표)	8
<표 2-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0년 11월 1일 발표)	8
<표 2-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1년 7월 1일 발표)	9
<표 2- 4>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12
<표 2-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요구사항	12
<표 2- 6>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의 영역별 주요 서비스 유형	17
<표 2- 7> 초등 고학년: 코로나19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아동 응답	18
<표 2- 8> 돌봄시설 수용 가능 비율(21년 4월 기준)	19
<표 3- 1> 연구대상	23
<표 3- 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25
<표 4- 1> 인구사회학적 특성	30
<표 4- 2> 코로나19 이후 규칙적인 식사 여부	31
<표 4- 3> 코로나19 이후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섭취 여부	31
<표 4- 4> 1주일에 5일 이상 섭취 아동의 비율(2018 vs 2021)	32
<표 4- 5>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이유	33
<표 4- 6>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이유(2018 vs 2021)	34
<표 4- 7>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수면시간/스마트폰인터넷게임/휴식시간	35
<표 4- 8>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36
<표 4- 9>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양부모 vs 한부모 · 조손)	37
<표 4-10> 코로나19 발생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38
<표 4-11>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교육환경	39
<표 4-12>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	40
<표 4-13> 코로나19 발생 전, 후 학교에 대한 인식 여부	41
<표 4-14> 코로나19 발생 전, 후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	41
<표 4-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서 하는 공부의 어려움 여부	42
<표 4-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서 하는 공부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	42

<표 4-17>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생활	43
<표 4-18>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44
<표 4-19>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2018 vs 2021)	45
<표 4-20> 가정 내 체벌과 가정폭력 목격 경험 현황	46
<표 4-21> 온라인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현황	47
<표 4-22>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예방 노력	48
<표 4-23> 코로나19 인지 정도	49
<표 4-24> 코로나19 정보 획득 주체	49
<표 4-25>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여부	50
<표 4-26>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수업으로 인한 걱정	51
<표 4-27>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 변화	52
<표 4-28>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 상태 변화	52
<표 4-29> 코로나19와 안정감	53
<표 4-30>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족도	54
<표 4-31>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계유지 방법	55
<표 4-32>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감정 정도	56
<표 4-33>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정적인 생각	56
<표 4-34>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걱정 정도	57
<표 4-35>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58
<표 4-36>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정도	59
<표 4-37>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정도(2018 vs 2021)	60
<표 4-38>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해소 방안	61
<표 4-39> 아동 재난정책에 대한 욕구	62
<표 4-40>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지역사회 이용기관	63
[그림 2-1] 코로나19의 사회생태적 영향	10
[그림 4-1]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58
[그림 4-2]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해소 방안	61
[그림 4-3] 아동 재난정책에 대한 욕구	62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로 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2020)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1일 기준 코로나19로 전 세계 3억 1천만명의 학생이 피해를 받았고 29개 국가가 코로나19로 휴교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빈곤아동이 평균 582백만명(32.2%) 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715백만명(38.4%)으로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빈곤 아동이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20).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장 취약한 집단 중의 하나인 아동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동과 가족의 감염위험으로 인해 아동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과 학교의 휴업으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아동과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써 아동과 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김선숙 외, 2020). 아동의 일상과 관련하여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2020년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보다 3끼 모두 챙겨 먹는 아동의 비율이 50.1%에서 35.9%로 낮아졌으며, 평일 5일 내내 아동끼리만 있는 나 홀로 아동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0.3%로 증가하였다(이봉주, 2020). 나 홀로 아동의 비율은 기아대책 이슈페이퍼의 결과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하루 평균 4시간 성인 없이 혼자 집에 있거나 미성년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는 57.7%인 것으로 나타났다(희망친구 기아대책, 2020, 재인용). 등교 및 등원 제한으로 아동의 교육은 비대면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일상 활동의 제약으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처럼 가정 내 교육과 돌봄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가운데 아동은 돌봄의 공백 상황에 놓이거나 교육 격차가 심화 된 교육 불평등의 상황에 놓이거나 폭력에 노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이봉주, 2020). 아동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집에서 혼자 지낼 때 TV나 휴대폰, 컴퓨터 등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숙 외,

2020).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중복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오경자, 2015).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계층의 생활 안정성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긴급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업, 빈곤,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하고 있다(최균, 2020).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역점을 두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과 같은 돌봄 대상자들은 돌봄서비스의 중단으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였고,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방역지침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면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마비를 초래하여 사회서비스의 제공 중단이 일어나게 되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때에 적절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위기상황에서 시민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위기대응 주체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이에 코로나19 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 삶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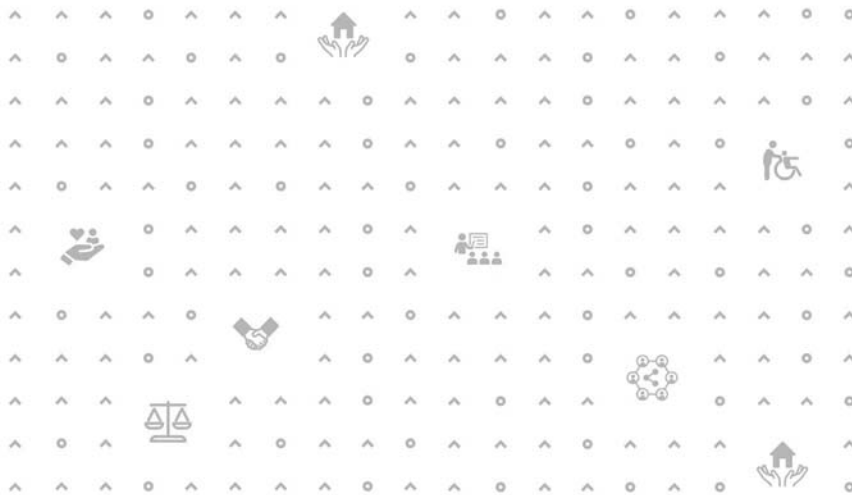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실태와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팬데믹과 아동

1. 팬데믹과 코로나19

재난이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는데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이라 한다. 그리스어로 ‘pan’은 ‘모두’, ‘demic’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신호진, 2021).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포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2019년(발생년도)을 뜻하는 약자로 COVID-19라 줄여 표현하기도 한다(손희나, 2020). 코로나19가 사람 간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예방책으로 외출시 마스크 쓰기과 손 소독제 사용이 제시되었다. 이에 마스크와 소독제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겪기도 하였다(신혜진, 2020).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여 2021년 10월 31일 0시 기준 36만4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전사회적 운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잠시 멈춤’ 등의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며 감염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2-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0년 6월 28일 발표)

구분 (최근 2주간)	1단계	2단계	3단계
	생활속거리두기		
기준 (일일 확진자 수)	전국50명 ↓	50명~100명 미만	100명~200명 이상 (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이상 증가)
다중이용시설	원칙적 허용하되 고위험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공공-운영 중단 민간-위험도 따라 운영중단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필수시설이 아닌 경우 운영제한 또는 중단
학교유치원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등교와 원격수업 병행 (등교시 밀집도 최소화)	등교수업 중단 원격수업 으로 전환 또는 휴원, 휴교
유행의 심각성 및 기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년 11월 1일 기준 3단계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었다.

<표 2-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0년 11월 1일 발표)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기준(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미만)	(다음 중 1충족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콘서트 등 인원제한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학교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고등학교 2/3)	밀집도 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

자료: 보건복지부(2021)

정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였다. 기존 5단계의 거리두기를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 (1단계), ‘지역유행’ (2단계), ‘권역유행’ (3단계),

‘대유행’ (4단계)의 4단계로 개편하여 지역별로 인구와 확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표 2-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2021년 7월 1일 발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기준(일일 확진자 수)	전국500명 ↓	전국500명 ↑	전국1,000 ↑	전국2,000 ↑
사적모임	제한없음	8명 허용	4명 허용	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없음	일부 24시까지	일부 22시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학교	전면등교	전면등교가능 (지역별 상황 따라 초3~6학년 3/4, 중.고 2/3이상 가능)	초3~6학년 3/4이내 중학교 1/3~2/3 고등학교 2/3	원격수업 전환
		유치원.초 1~2밀집도 제외 소규모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 전면등교 가능		특수학교 1:1, 1:2 대면교육 가능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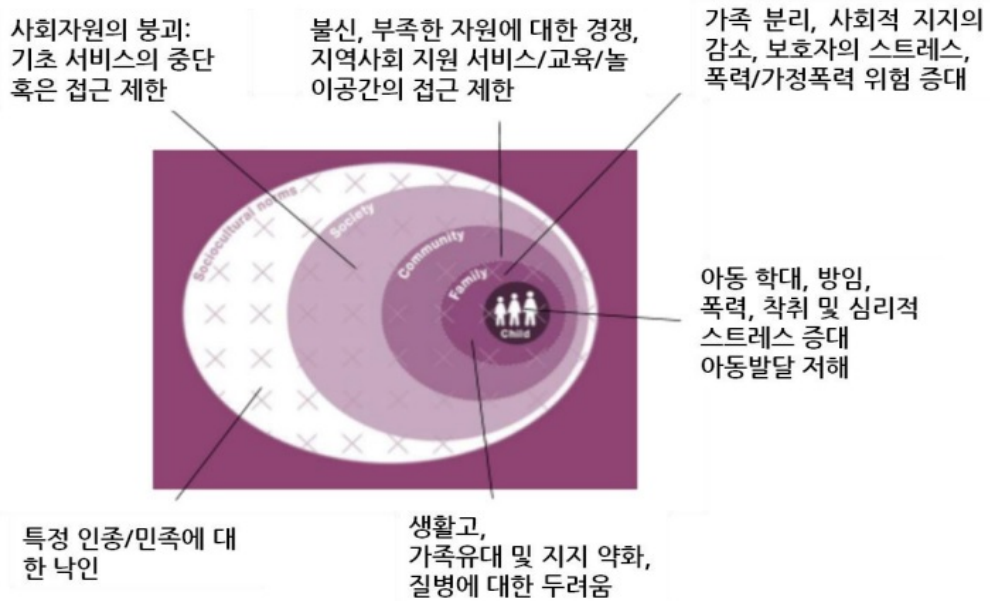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1)

2.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의 많은 삶은 변화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의하면, 전 세계의 많은 아동들이 감염의 위험뿐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많은 가족이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음식 등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며, 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 폭력과 학대, 노동 착취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영양실조, 생존과 건강에 대한 위협, 학습위기, 안전에 대한 위기 등은 나라별로 지역별로 위험 수준이 다르지만, 많은 아동이 이러한 위기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김선숙 외, 2020).

UNICEF(2020)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기간 동안의 아동보호에서는 사회생태적 영향에 대해 아래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코로나19의 사회생태적 영향



출처: UNICEF(2020).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Technical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Version 1.

국가적 차원 또는 지역적 차원의 봉쇄 및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경제침체, 사회불안이 더욱 가속되었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의 규모가 성인들에 비해 많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과 교육 관련 변화 등 여러 변화를 맞이하였다(이봉주, 2020).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은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고 공공기관 및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및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던 곳이 한시적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에 오랫동안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르게 되었고 아동에 대한 돌봄 및 양육은 전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긴급 돌봄 및 외부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사각지대에 있거나 외부 자원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근로와 아동의 돌봄 문제가 상충 되면서 돌봄 공백이 심화 되었다.

또한, 감염위험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 돌봄기관, 학원 등의 운영까지 제한되면서 어디에도 친구들과 자유롭게 교유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또 학교는 거둬들인 개학연기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모니터링하는 보호자의 유무와 학습기기 보유능력에 따라 아동의 학습격차의 간극이 더 커져 버렸다(정익중 외, 2021).

감염 확산 지역 중심으로 보호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아동들에게서 집착, 산만함, 짜증과 과민함, 감염병과 친척의 건강을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악몽을 포함한 불면증, 식욕 부진, 신체적 불편함, 불안과 부주의, 집착, 분리 문제가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정익중, 2020). 비대면 교육과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는 학습권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부적절한 콘텐츠 및 미디어 폭력으로부터의 노출 증가는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UNICEF, 2020b, 재인용).

코로나19 이후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지역 돌봄서비스가 폐쇄 되거나 휴원하게 되면서 돌봄 공백에 놓이게 된 아동들이 매 끼니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고(김선숙 외, 2020, 재인용) 마스크와 소독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방역물품도 제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정익중, 2020).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조사 결과(정익중, 2020), 초등학생 절반가량(46.8%)이 등교하지 않은 평일 낮 시간대에 성인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형제도 없이 혼자 있는 경우도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가족 형태에 따라 방임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등교중단기간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를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결과 ‘앞으로 해야 할 공부를 생각하니 걱정된다(55.2점)’,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해 불만(47.0점)’, ‘집에 있는 동안 살찌고 외모가 못생겨질까 봐 걱정(33.1점)’, ‘부모님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해 짜증이 났다(29.0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32.4%)은 ‘불안하지 않다(25.6%)’ 보다 높았다(김선숙 외, 2020).

제2절 코로나19와 아동의 실태 현황

1. 아동의 4대 권리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김영남, 2009).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은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아동권리	내용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방임·차별·폭력·고문·징집·부당한 형사체벌·과도한 노동·악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으로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료: 국제아동인권센터(2021)

우리나라 아동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존권을 비롯해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대 권리 측면에서 여러 권리 침해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놀이 및 휴식,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과거와 비교해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아동의 비율이 감소했고 놀이 및 휴식 활동은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에 집중되었으며 가정과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등 코로나19는 아동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202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4월 8일 코로나19 감염병이 아동에게 막대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여 당사국에 아동권리에 입각한 철저한 보호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표 2-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요구사항

아동권리	요구내용
생존권	영양가 있는 음식과 깨끗한 물의 공급, 의료·위생·출생등록과 같은 기본서비스의 제공, 격리 아동에게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보호권	가정 내 격리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모든 아동을 차별 없이 보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치
발달권	온라인 학습 사각지대 지원, 여가·놀이·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모색
참여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 제공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0)

2. 아동의 권리와 실태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미래의 국가적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건강과 생활 수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장기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은 영양과 식품 섭취에 큰 영향을 받는다(김희진, 2020). 코로나19 이후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지역 돌봄 서비스가 폐쇄되거나 휴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돌봄 공백에 놓이게 된 아동들이 매 끼니를 적절하게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김선숙 외, 2020). 아동은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므로 보호자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돌봄 종사자들의 개입 없이는 재난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정익중, 2020). 굿네이버스의 조사결과(이봉주, 2020), 생존권에서 아동의 식생활은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이 2018년에는 69.4%였는데 2020년에는 65.6%로 3.8% 감소하였고 ‘하루 3끼를 모두 챙겨 먹는 아동’은 2018년에 50.1%에서 2020년에는 35.9%로 아동 10명 중 6명이 결식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먹지 못한 아동’이 2018년에는 1.3%에서 2020년에는 7.6%로 약 6배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등으로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한 아동들이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에 역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정익중, 2020). 유니세프의 ‘세계아동현황 보고서’는 2021년 코로나19의 봉쇄와 고립으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다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7명 중 1명의 아동·청소년은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16억명 이상이 교육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개국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종종 우울함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하는 데에 조금의 흥미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중앙일보,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학령기 아동·청소년 1,825명을 상대로 조사한 우울·불안은 2018년 3점 만점에 1.17점에서 2020년 1.24점으로 상승했다.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지난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가 개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포럼에서 “타킷을 성인에만 맞추지 말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과 계획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뉴시스, 2021).

그리고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하자 2020년 3월 2일 예정이던 개학일을

세 차례에 걸쳐 연기한 끝에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김경근, 2020).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달 5~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학교의 역할 및 온라인 수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격차가 커졌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학생의 학습능력 차이’(20%), ‘부모의 학습 지원 차이’(17.0%),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의 한계’(17.0%),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차이’(16.0%),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적응력의 차이’(14.0%) 순이었다(한국일보, 2021). 이는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이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2021년 2학기부터 초·중·고 각급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등교 실시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이 1년 반 만에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하지만 어느덧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일부 학생들은 등교 확대에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에 매일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백 투 스쿨 블루(Bark to School Blu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다(한겨레, 2021).

여가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개념의 정의를 달리할 수 있으나 공통적인 개념은 일과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일과 생활을 위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비구속 시간 중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좀 더 의미를 넓게 보면 그러한 시간 동안에 행해지는 활동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김지태, 2004).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9세부터 17세 아동의 70% 이상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며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부족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70% 이상이 학습 관련이라고 응답하였다(박지혜, 2021, 재인용). 아동의 발달권으로 조사한 아동의 여가에서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시간(학업 목적의 사용시간 제외)은 총 2.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66.2%의 아동이 코로나19 이후 이용 시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놀이 및 휴식시간(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시간 제외)은 총 2.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57.0%의 아동이 코로나19 이후 놀이/휴식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문제로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한 아동은 47.6%로 나타나 약 2명 중 1명의 아동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보호자와 갈등이 있었다.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초등 고학년 아동은 ‘친구들 만나기’가 2018년 9.3%에서 2020년

1.5%로 감소하였고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시간’이 2018년에는 24.1%에서 2020년에 16.6% 감소하였고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는 2018년에는 10.8%에서 2020년은 18.3% 증가하였고 ‘넷플릭스/드라마 시청하기’도 2018년 6.0%에서 2020년 12.5%로 증가하였다(이봉주, 2020). 불균형한 일상으로부터의 균형 회복은 아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선결 조건이므로 코로나19 이후에도 하루 대부분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운동, 휴식, 놀이 등 학업 외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정익중, 2020).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이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 범주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나 돌봄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겨레, 2021).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2021). 한겨레가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치 아동학대 등 범죄 통계를 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2016년 4,580명에 견주어 2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1~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572명으로 2016년이나 2017년의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한겨레, 2021). 굿네이버스의 조사결과(이봉주, 2020), 보호권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에 관한 결과는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기’가 2018년 51.1%에서 2020년 55.6%,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기’는 2018년 20.1%에서 2020년 29.3%로 정서학대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아동 삶의 변화와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응”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과 행동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과 같이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신뢰 있는 정보가 아동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전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김선숙(2021). 굿네이버스의 조사결과(이봉주, 2020), 참여권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정보 획득 주체’ (100점 만점)가 부모님이나 가족이 66.8점, 교육기관이 63.6점, 뉴스나 미디어 62.3점 정부(국가)는 60.5점으로 나타났고 ‘재난정책에 대한 아동 참여’ (100점 만점)는 42.1점으로 재난정책에 관한 아동 참여가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

제3절 코로나19와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복지서비스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요보호 아동 중심, 즉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반영하듯,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는 아동복지의 우선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빈곤, 학대, 입양 및 위탁, 소년소녀가장, 장애아동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나 서비스에 치중되어왔다(송주미, 2004, 재인용). 아동복지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동은 물론 일반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수립, 수행하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정금연 외, 2021).

아동복지서비스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 복지 서비스에는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보충적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가 있다(Kadushin, 1981, 재인용).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보조적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형태로 부적절하거나 제한된 부모 역할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행하는 서비스다.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제 3자가 부모 역할의 전부를 떠맡는 경우이다(국가기록원, 2021).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일반시설(기관)과 복지시설(기관)로 구분하였고 일반시설에는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으로 정의하였고 복지시설로는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회복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정의하였다(장연진 외, 2020). 장연진(2020)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한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2. 코로나19와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공급자 지원 방식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같은 일부 본인의 부담분이 존재하는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공주은, 2020).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영역별 주요 서비스 유형을 <표 2-6>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2-6>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의 영역별 주요 서비스 유형

영역	유형	내용
아동 돌봄	보육 서비스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놀이학교 이용 등 사설 보육서비스는 제외
	방과후 돌봄 서비스	- 방과후 돌봄(초등학교) 이용,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다함께 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수련관 이용 등 ※ 학원, 공부방 등 사교육 서비스는 제외
	기타 아동 돌봄 서비스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입양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 아동·청소년 쉼터 및 그룹홈 이용 등
건강	신체건강 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당뇨 및 고혈압 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이용, 예방접종 이용, 금연·금주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서비스, 생활체육 서비스, 스포츠 바우처 등 ※ 질병 등의 치료 목적 의료서비스는 제외
	정신건강 서비스	- 각종 상담서비스(부분상담, 사례관리, 가족상담 등), 알콜 및 약물중독 관리, 인터넷·게임 중독 관리, 우울 및 자살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아동·노인 학대, 성·가족·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재활 서비스	- 작업치료, 수중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 각종 재활서비스
교육	교육지원/ 평생교육 서비스	- 취약계층 자유수강권, 공공 공부방, 평생교육원·주민센터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부모교육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등 ※ 학원, 공부방 등 사교육 서비스는 제외
문화 여가	문화 및 여가 서비스	-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이동 영화관, 취약계층 예술 지원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악기 지원 서비스 등 ※ 영화, 공연 관람 등 취미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2019)

아동권리보장원의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 결과(김선숙, 2020)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초등 고학년 아동들의 재난 관련 물품 지원(38.5%)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36.4%였다. 재난 관련 정보제공·교육이 25.6%, 온라인 교육 기자재 지원이 20.8%, 식사 및 먹거리 지원이 23.7%, 교구·교재 지원은 23.2%였다. 그 외에 문화·여가 지원은 14.9%, 재난 관련 상담은 9.4%로 응답하였다. 또한, 재난·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돌봄 지원 관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로는 식사·먹거리에 대한 서비스가 39.9%, 긴급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관련 필요 서비스로는 물품 지원이 53.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정보제공·교육이 16.0%, 상담 4.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습 관련 필요 서비스로는 교육/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32.1%, 온라인 교육 기자재 지원이 28.4%, 교구·교재 지원은 24.1%로 나타났다. 그 외에 문화·여가 바우처는 39.0%였다.

<표 2-7> 초등 고학년: 코로나19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 경험 아동 응답

구 분	돌봄서비스		재난·안전			교육·학습			문화/여가
	긴급 돌봄	식사/ 먹거리	상담	정보제공 /교육	물품 지원	온라인 기자재	교육·학습 프로그램	교구·교재 지원	바우처 지원 등
전 체	2,054	3,020	1,201	3,255	4,902	2,635	4,630	2,948	1,893
	16.1%	23.7%	9.4%	25.6%	38.5%	20.7%	36.4%	23.2%	14.9%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시설) 및 교육기관의 운영 중단(이봉주 외, 2020)으로 인해 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았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시설은 학원이었다(아주경제, 2021). 통계청(2020)의 “코로나19가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19 초반에는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졌다(경향신문, 2021). 초등학생은 평균적으로 2.3개 학원에 다니며 영어 과목을 가장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서울과 인천·대전·대구·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 거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평균 2.3개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강 과목(중복 응답)으로는 영어(57.5%)가 가장 많았으며, 수학(44.2%), 피아노(37.0%), 미술(32.7%), 태권도(30.2%), 기타과목(17.5%), 논

술·토론(14.5%)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20). 그리고,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지난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공적 돌봄서비스 불신’이 ‘학원 뽕뽕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 저학년부터 예체능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진 점도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증가한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다는 초등생 학부모 중 ‘보육’이 사교육을 시킨 이유에 포함돼있다고 답한 이는 15.3%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올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마을돌봄’으로 올해 42만5천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보다 수혜자가 늘어났지만, 수요에 견주어서는 턱없이 적다. 이는 학원을 대신할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왕 아이를 맡긴다면 돌봄에 더해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 마음인데 공적 돌봄서비스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2020).

공적 돌봄체계 활용률은 16.3%로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4월 기준 초등돌봄 수용 가능 비율 16.3%(43만9232명)에서 2018년 독일 기준 42.2%(우리나라 초등학생 42.2%는 113만6748명)까지 도달하려면 약 39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시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 이들 돌봄시설의 수용 인원은 매년 1~2만명씩 증가해 2021년 4월 기준 총 43만9232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269만3717명 중 16.3%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등돌봄교실만 보면 10.9%며, 2020년 9월 기준 오후 연장(5시~7시)과 저녁 돌봄(7시 이후)을 이용한 학생은 0.15%(4205명)에 불과해 공적 돌봄 의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교육플러스, 2021).

<표 2-8> 돌봄시설 수용 가능 비율 (21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학생수	초등돌봄 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합계
수용정원	2,693,717	294,160	12,629	125,858	6,585	439,232
비율	100%	10.9%	0.4%	4.6%	0.2%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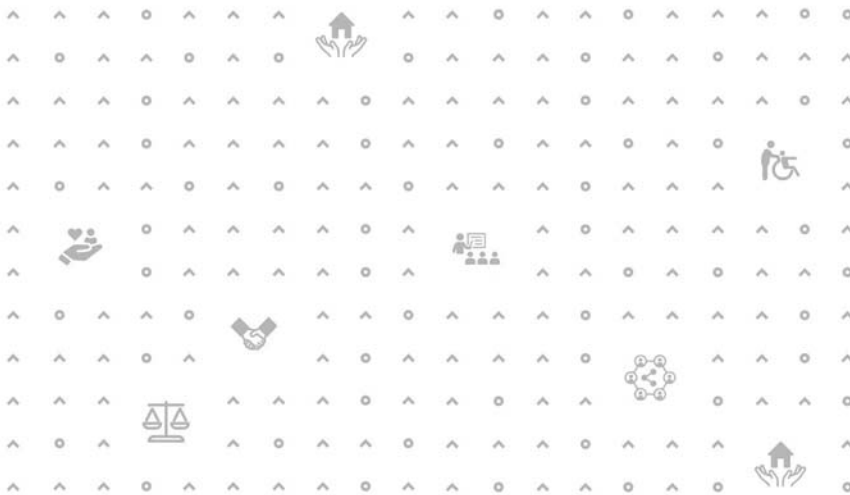
출처: 교육플러스(2021)

지역아동센터에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원격학습 날에도 맞벌이 부모의 출근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학교에 나와서 원격학습 지원과 점심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를 만들었고 올해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올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인 김형진(가명)군은 새 학기를 맞아 학원 두 군데를 더 등록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평일 낮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 혼자 지내는 생활이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학교 긴급 돌봄을 이용해 돌봄 공백을 채웠지만, 올해는 학교가 저학년에게만 긴급 돌봄을 제공해주게 되면서 5학년인 김 군에게는 갈 곳이 없어졌다. 올해부터는 등교하지 않는 날엔 혼자 원격수업을 듣고 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왜 학원이 필요한지 실감하고 있다. 우리 같은 맞벌이는 요즘 같은 시국에는 돌봄 공백을 학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시사IN, 2021).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제3장 연구방법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 삶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남녀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13개교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남녀의 비율을 1:1로 맞추어 배부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설문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총 13곳의 초등학교에 설문지 500부를 배부하였고 500부를 회수하였다. 특정 숫자에만 일괄적으로 체크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3부를 제외한 457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대상

구분			빈도(N)	백분율(%)
학생	성별	남자	243	53.2
		여자	214	46.8
계			457	100.0

제3절 조사도구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6학년의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 삶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봉주, 장의선(2020)이 구성한 ‘코로나 19 이후 아동의 삶 :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구성한 ‘코로나 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설문지의 내용을 2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보안 하였다. 자문진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다년간 걸쳐서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지 현장실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경험 역시 풍부한 전문 연구자로 구성하였다. 2021년 5월 초에 설문조사 양식을 구상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시간, 설문 문항의 길이 및 내용, 설문 응답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문항 번호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학생용 설문지 지표는 인구 사회학적 배경(성별, 거주지역, 가구 유형, 주관적 학업능력, 주관적 경제 수준), 코로나 19 이후 식습관(규칙적인 식사, 식습관 변화, 결식이유), 코로나 19 이후 여가생활(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시간, 놀이 및 휴식시간), 코로나 19 이후 생활 변화(가정 내 생활 변화, 코로나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코로나 예방수칙 대응, 일상 생활 수준 변화, 건강상태 수준 변화, 안전인식, 생활 만족도, 타인과 관계유지 방법, 코로나 19 이후 걱정 정도, 코로나 이후 어려움, 코로나 이후 힘든 해소 방안), 가정환경(가정 내 활동, 아동방임 및 학대, 가정폭력 목격 경험, 온라인 폭력 경험), 교육 및 학습(온라인 환경, 스마트폰 사용 갈등, 코로나 19 이후 학교 인식, 코로나 19 이후 학교 인식변화, 혼자 학습의 어려움, 혼자 학습의 어려움 이유), 참여 및 지원(코로나 19 인지 정도, 코로나 정보자원, 코로나 관련 자원 욕구), 등교 이슈(현재 등교 여부, 등교 수업시 걱정), 정신건강(감정, 부정적 생각),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지역사회 이용기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3-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대영역	소영역	내용	문항 번호	측정 방법
코로나 19 이후 아동의 삶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1	이분형
		거주지역	2	선다형
		가족 구성원	3	선다형
		주관적인 전 과목 성적(학업능력)	4	선다형
		주관적인 가정 경제 수준	5	선다형
	식습관	규칙적인 식사(아침, 점심, 저녁)	6-①	선다형
		식습관 변화(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6-②	선다형
		결식이유	7	선다형
	여가생활	수면시간	8-①	선다형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시간	8-②	선다형
		놀이 및 휴식 시간	8-③	선다형
	생활변화	가정 내 생활	17	선다형
		코로나19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10	선다형
		코로나19 예방수칙 대응	21	선다형
		일상생활 변화수준	26	5점 척도
		건강 상태 변화수준	27	5점 척도
		안전인식	28	선다형
		생활 만족도	29	5점 척도
		타인과 관계유지 방법	30	선다형
		코로나19 이후 걱정 정도	33	4점 척도
		코로나19 이후 어려움(3순위)	34	선다형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정도	35	5점 척도
		코로나19 이후 힘든 해소 방안	36	선다형
	가정환경	가정 내 활동(3순위)	9	선다형
		아동방임 및 학대	18	4점 척도
		가정폭력 목격 경험	19	이분형
		온라인 폭력 경험	20	이분형
	교육 및 학습	온라인 교육환경	11	선다형
		스마트폰 사용 갈등	12	이분형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	13	이분형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	14	선다형
		혼자 학습의 어려움	15	이분형
		혼자 학습의 어려움 이유	15-1	선다형

<표 3-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이어서)

대영역	소영역	내용	문항 번호	측정 방법
코로나 19 이후 아동의 삶	참여 및 지원	코로나 19 인지 정도	22	선다형
		코로나 정보자원	23	선다형
		코로나 관련 지원 욕구(3순위)	37	선다형
	등교이슈	현재 등교 여부	24	선다형
		등교수업 시 걱정	25	선다형
	정신건강	감정	31	5점 척도
		부정적 생각	32	이분형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이용기관	38	선다형

제4절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응답 및 일괄적인 응답 등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쳐 설문지별 자료 분석을 하였다. 주요 자료 및 분석 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 및 측정요인들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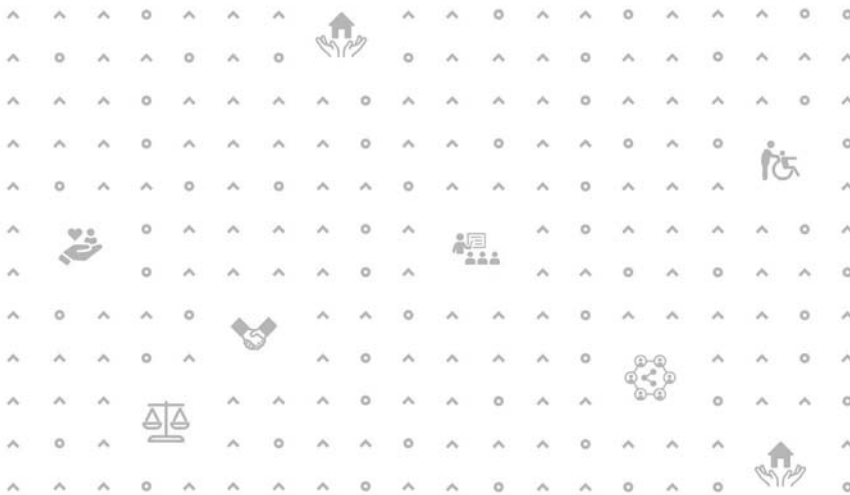
셋째, 성별 및 가구 유형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코로나 19 이후 삶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및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제4장 연구결과



제4장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13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했으며 부실 응답 설문지 43부를 제외한 총 45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중에서 표집된 학생들(N=457)로서 성별은 남학생이 243명(53.2%)이고 여학생이 214명(46.8%)으로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거주지역은 서구 144명(31.5%), 동구 111명(24.3%), 중구 100명(21.9%), 대덕구 61명(13.3%), 유성구 41명(9.0%)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유형은 양부모 가정이 369명(80.7%), 한부모 가정 78명(17.1%), 조손가정 8명(1.8%), 소년소녀가장 가정 2명(4.0%)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인 전 과목 성적(학업능력)은 상 96명(21.1%), 중 337명(74.1%), 하 22명(4.8%)로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주관적 성적은 중위권이 가장 많았고 상위권, 하위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주관적인 가정 경제 수준은 상 57명(12.5%), 중 372명(82.5%), 하 22명(4.9%)로 조사되었다.

<표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43	53.2
	여	214	46.8
거주지역	대덕구	61	13.3
	동구	111	24.3
	서구	144	31.5
	유성구	41	9.0
	중구	100	21.9
가구 유형	양부모 가정	369	80.7
	한부모 가정	78	17.1
	조손 가정	8	1.8
	소년소녀가장 가정	2	4.0
주관적인 전 과목 성적(학업능력)	상	96	21.4
	중	337	74.1
	하	22	4.8
주관적인 가정 경제 수준	상	57	12.6
	중	372	82.5
	하	22	4.9
전체		457(100.0)	

제2절 재난과 아동권리

아동의 식생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습관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재난과 아동의 식생활

1) 코로나19 이후 식습관 수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규칙적인 식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4-2>와 같다.

‘1주일에 5일 이상 먹는다.’ 47.5%로 ‘전혀 먹지 않는다’ 4.2%, ‘1주일에 1~2일’ 20.2%, ‘1주일에 3~4일’ 28.2%로 응답 비율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성별의 경우 ‘1주일에 1~2회’ 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아가 25.0%로 남아 15.9%보다 높게 나타나 여아의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5일 이상 먹는다’ 라고 응답한 비율의 가구 유형에서 양부모 가정이 50.6%로 한부모·조손가정 14.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가구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식생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정유형별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양부모 가정이 한부모·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보다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코로나19 이후 규칙적인 식사 여부

구분		규칙적인 식사(아침, 점심, 저녁)를 한다.					t/F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전체 응답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1 (4.6)	38 (15.9)	69 (28.9)	121 (50.6)	239 (100.0)	1.675
	여	8 (3.7)	53 (25.0)	58 (27.4)	93 (43.9)	212 (100.0)	
가구 유형	양부모	1 (3.6)	6 8(18.7)	98 (27.0)	184 (50.7)	363 (100.0)	5.276**
	한부모 · 조손	6 (7.0)	21 (9.9)	29 (13.7)	30 (14.2)	86 (100.0)	
	소년소녀가장	0 (0.0)	2 (100.0)	0 (0.0)	0 (0.0)	2(100.0)	
전체 응답자		19(4.2)	91(20.2)	127(28.2)	214(47.5)	451(100.0)	-

***p<0.001, **p<0.01, *p<0.05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섭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4-3>과 같다.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은 전체 응답자의 66.0%가 ‘1주일에 1~2번’ 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4-3 > 코로나19 이후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섭취 여부

구분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 자주 먹는 편이다.					t/F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전체응답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7 (7.4)	152 (66.4)	48 (21.0)	12 (5.2)	229 (100.0)	-.825
	여	11 (5.3)	137 (65.6)	50 (23.9)	11 (5.3)	209 (100.0)	
가구 유형	양부모	25 (7.0)	234 (65.9)	75 (21.1)	21 (5.9)	355 (100.0)	0.169
	한부모 · 조손	3 (3.7)	5 (65.9)	23 (28.0)	2 (2.4)	82 (100.0)	
	소년소녀가장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전체응답자		28(6.4)	289(66.0)	98(22.4)	23(5.3)	438(100.0)	-

***p<0.001, **p<0.01, *p<0.05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식습관 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표4-4>에서 본 조사결과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시행되었던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 아동의 식습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이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실시한 본 조사에서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을 ‘1주일에 5일 이상’ 섭취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식습관은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됨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4> 1주일에 5일 이상 섭취 아동의 비율(2018 vs 2021)

구분	규칙적인 식사 (아침, 점심, 저녁)를 한다.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 자주 먹는 편이다.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전혀먹지 않음	19(4.2)	28(6.4)
1주일에 1~2일	91(20.2)	289(66.0)
1주일에 3~4일	127(28.2)	98(22.4)
1주일에 5일이상	214(46.8)	23(5.3)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¹⁾ (6학년)	3,108(70.3)	3,108(3.5)

1)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의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의 3개 학년 총 9,176명으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은 3,108명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경향성을 코로나19 이전의 경향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의 경우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3,108명) 결과와 비교 제시했다.

2) 결식이유

<표 4-5>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경우, 식사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살 빠려고 혹은 건강 때문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경우, 한부모·조손 가구의 응답자가 6.6%로 양부모 가구 2.1%보다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5>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이유

구분	성별		가구 유형			전체 응답자
	남	여	양부모	한부모 · 조손	소년 소년가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해당 없음	131 (45.6%)	80 (29.2%)	179 (40.9%)	30 (24.80%)	2 (100.0%)	211 (37.6%)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59 (20.6%)	73 (26.6%)	100 (22.8%)	32 (26.4%)	0 (100.0%)	132 (23.5%)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62 (21.6%)	79 (28.8%)	108 (24.7%)	33 (27.3%)	0 (100.0%)	141 (25.1%)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6 (2.1%)	11 (4.0%)	9 (2.1%)	8 (6.6%)	0 (100.0%)	17 (3.0%)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7 (2.4%)	10 (3.6%)	11 (2.5%)	6 (5.0%)	0 (100.0%)	17 (3.0%)
살 빠려고, 혹은 건강 때문에	13 (4.5%)	16 (5.8%)	22 (5.0%)	7 (5.8%)	0 (100.0%)	29 (5.2%)
기타	9 (3.1%)	5 (1.8%)	9 (2.1%)	5 (4.1%)	0 (100.0%)	14 (2.5%)
전체	287 (100.0%)	274 (100.0%)	438 (100.0%)	121 (100.0%)	0 (100.0%)	561 (100.0%)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결식이유에 대한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서 조사됐던 결식이유와 비교하였다.

‘3끼 모두 챙겨 먹음’을 응답한 아동은 본 조사에서 37.9%지만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서는 50.1%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결식의 이유로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본 조사에서는 23.6%로 나타났지만, 2018년에는 20.1%로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입맛 등의 이유로 결식을 한 아동이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4-6>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이유(2018 vs 2021)

구분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21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	
	빈도(백분율)	순위	빈도(백분율)	순위
해당없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회의 식사를 모두 챙겨 먹었음)	4,249(50.1)	1	211(37.9)	1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2,214(26.1)	2	132(23.5)	3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1,705(20.1)	3	141(23.6)	2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부모님이 일찍 출근하셨거나 아프셨던 경우 포함)	110(1.3)	5	17(3.0)	5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	9(0.1)	7	17(3.0)	5
살 빠려고, 혹은 건강 때문에	179(2.1)	4	29(5.2)	4
기타	17(0.2)	6	14(2.5)	6
전체	8,483(100.0) ²⁾	-	556(100.0) ³⁾	-

- 2) 2018 대한민국 아동 권리지수 조사에 참여했던 9,176명 중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아동들의 응답(694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자료.
3) 일부 아동의 경우 중복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조사 참여대상 아동 (574명)을 초과함.

2. 재난과 아동의 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여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면시간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시간, 놀이 및 휴식시간, 아동의 일상에 관한 여러 활동의 영위 수준을 확인하였다.

1) 수면시간

아동의 수면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 수면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응답자의 42.9%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아동이 40.0%로 감소했다는 응답자 17.1%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놀이 및 휴식시간

(1)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시간(학습을 위한 사용시간 제외)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53.4%로 가장 높았으며, 38.2% 비슷하다, 7.9%가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2) 놀이 및 휴식 시간(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사용시간 제외)

놀이 및 휴식시간 변화에 대해서는 46.5%가 비슷하다고 응답했으며, 증가했다는 아동이 35.4%, 감소했다는 아동이 18.1%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놀이 및 휴식시간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수면시간 /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휴식시간

구분	수면시간(낮잠 포함 총 수면시간)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학습을 위한 사용시간 제외)	놀이 및 휴식 시간(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사용시간 제외)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등교할 때 보다 적음	78(17.1)	36(7.9)	82(18.1)
등교할 때와 같음	182(40.0)	173(38.2)	210(46.5)
등교할 때 보다 많음	195(42.9)	244(53.4)	160(35.4)
평균(표준편차)	2.25(0.73)	2.45(0.63)	2.17(0.71)
전체 응답자	455(100.0)	453(100.0)	452(100.0)

3)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아동의 다양한 활동 중 어떠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가지의 일상의 활동을 조사하였다.

아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친구 만나기’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모바일 게임 하기’,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순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가장 많이 한 활동이 ‘컴퓨터/모바일 게임 하기’로 나타났고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아동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친구들 만나기’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아동의 활동 비중이 약 18.1%에 해당했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4.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활동비 중이 5.1%에 해당했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약 12.6%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8>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

구분	코로나 19 이전		코로나 19 이후	
	빈도(백분율)	순위	빈도(백분율)	순위
집안일 돕기	70(5.2)	8	96(7.1)	7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34(2.5)	11	41(3.0)	11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147(10.9)	5	96(7.1)	7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153(11.4)	3	110(8.2)	4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112(8.3.)	7	179(13.3)	2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예: 퍼즐 맞추기 등)	21(1.6)	12	58(4.3)	10
스포츠 및 신체 활동하기	148(11.0)	4	79(5.9)	8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171(12.7)	2	240(18.7)	1
SNS 활동하기(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53(3.9)	10	100(7.4)	6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125(9.3)	6	101(7.5)	5
친구들 만나기	243(18.1)	1	65(4.8)	9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69(5.1)	9	169(12.6)	3
총계	1,346(100.0)	-	1,334(100.0)	-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은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친구 만나기’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순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가 가장 많이 한 활동으로 나타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양부모 가정과 비슷하게 ‘친구들 만나기’가 가장 많이 한 활동이고,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컴퓨터/모바일 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양부모 가정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모바일 게임’ 활동을 가장 많이 하며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양부모 가정 vs 한부모·조손가정)

구분	가구 유형							
	양부모 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집안일 돕기	59	5.42	73	6.78	27	5.54	23	9.09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27	2.48	30	2.79	15	3.08	10	3.95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126	11.57	83	7.71	54	11.09	13	5.14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 (학원, 과외 등)	128	11.75	96	8.92	72	14.78	14	5.53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85	7.81	40	3.72	46	9.45	38	15.02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 (예, 퍼즐 맞추기 등)	15	1.38	46	4.28	10	2.05	11	4.35
스포츠 및 신체 활동하기	119	10.93	64	5.95	5	1.03	15	5.93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135	12.40	193	17.94	71	14.58	47	18.58
SNS 활동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38	3.49	76	7.06	8	1.64	24	9.49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110	10.10	88	8.18	45	9.24	12	4.74
친구들 만나기	197	18.09	53	4.93	118	24.23	12	4.74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50	4.59	134	12.45	16	3.29	34	13.44
전체	1,089	100.0	1,076	100.0	487	100.0	253	100.0

4)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가활동 요구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동’과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관람’,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관람’, ‘기타(서술)’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아동 욕구를 확인한 결과 ‘관광 활동’에 대한 욕구가 77.0%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관람’은 10.6%로 나타났다.

<표 4-10> 코로나19 발생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구분	빈도(백분율)
관광 활동 (가족여행 및 캠핑, 현장 체험학습(수련 활동이, 수학여행 등), 놀이공원/식물원 가기 등)	348(77.0)
스포츠활동 참여 및 관람(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경기장 가기 등)	48(10.6)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관람(미술 활동, 악기연주, 영화/연극 보기, 박물관 가기 등)	28(6.2)
기타	28(6.2)
전체	908(100.0)

3. 재난과 아동의 교육

1) 온라인 교육환경

아동의 온라인 교육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아동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은 어떠한지에 관한 문항들을 코로나19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해당 문항들에 대한 아동들의 응답 수준을 확인하였다.

아동들은 ‘선생님과 소통’, ‘학교의 변화 및 공지, 안내사항 인지’, ‘학교 등교 이후 진도에 대한 걱정 없음’ 정도에 대해 대체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진행 시 도움 요청 존재’, ‘수업 진행 상황에 대한 부모 또는 선생님의 관심’, ‘수업 듣기 위한 도구 및 환경’ 등 아동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여건에 관해 확인해 본 결과 ‘수업 듣기 위한 도구 및 환경’의 준비 정도가 평균 8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수업 진행 시 도움 요청 존재’는 평균 74.8점으로 평가하였다.

아동이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의 교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원활한 홈페이지 접속 및 동영상 시청’, ‘질의 및 응답에 대한 편리성’, ‘숙제의 양과 난이도의 적

절성’, ‘숙제 제출의 용이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질의 및 응답에 대한 편리성’은 평균 71.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원활한 홈페이지 접속 및 동영상 시청’이 평균 72점으로 나타났다.

<표 4-11>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교육환경

구분	남자	여자	전체	t/F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합계	합계	합계	
선생님과의 소통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3.01(0.59)	3.04(0.59)	3.02(0.59)	-.532
	75.3점	76점	75.5점	
학교의 변화 및 공지, 안내사항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느낀다.	2.96(0.63)	2.99(0.63)	2.97(0.63)	-.472
	74점	74.8점	74.3점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이 진행되어도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3.03(0.69)	3.08(0.68)	3.06(0.68)	-.718
	75.8점	77점	76.5점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하다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00(0.75)	2.97(0.78)	2.99(0.76)	.441
	75점	74.3점	74.8점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은 관심을 가진다.	3.03(0.64)	3.11(0.65)	3.07(0.65)	-1.296
	75.8점	77.8점	76.8점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나 환경(컴퓨터, 인터넷)은 잘 갖추어져 있다.	3.32(0.66)	3.36(0.64)	3.34(0.65)	-.685
	83점	84점	83.5점	
수업을 들을 때 홈페이지 등에 접속은 잘 되었고 동영상의 버벅거림 등은 없다.	2.91(0.79)	2.84(0.83)	2.88(0.81)	.933
	72.8점	71점	72점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	2.94(0.72)	2.78(0.73)	2.87(0.73)	2.358**
	73.5점	69.5점	71.8점	
수업에 대한 숙제의 양과 난이도는 적절하다.	2.97(0.73)	3.01(0.61)	2.99(0.68)	-.547**
	74.3점	75.3점	74.8점	
수업에 대한 숙제 제출의 어려움은 없다.	2.99(0.70)	2.99(.72)	2.99(.71)	.016
	74.8점	74.8점	74.8점	

***p<0.001, **p<0.01, *p<0.05

2)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문제 갈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터넷 게임이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 여부를 살펴보면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 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갈등 발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장시간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

구분	성별		t/F	가구 유형			t/F	전체 응답자
	남	여		양부모	한부모·조손	소년소녀가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예	90 (40.4)	101 (49.5)	1.903**	160 (45.8)	31 (40.8)	0 (0.0)	1.134	191 (44.7)
아니오	133 (59.6)	103 (50.5)		189 (54.2)	45 (59.2)	2 (100.0)		236 (55.3)
평균 (표준편차)	1.59 (0.49)	1.50 (0.50)		1.54 (0.49)	1.59 (0.49)	2.00 (0.0)		1.55 (0.49)
전체	223 (100.0)	204 (100.0)		349 (100.0)	76 (100.0)	2 (100.0)		427 (100.0)

*** $p<0.001$, ** $p<0.01$, * $p<0.05$

3) 코로나19 로 인한 학교

(1) 코로나19 발생 전, 후 학교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학교에 대한 의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학교에 대한 아동의 생각은 47.6%가 ‘변했다.’ 라고 응답했으며, 52.4%가 ‘변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했다.

<표 4-13> 코로나19 발생 전, 후 학교에 대한 인식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변했다	215	47.6
변하지 않았다	237	52.4
전체	452	100

(2) 코로나19 발생 전, 후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에 대한 아동의 인식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립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이 45.1%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감염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21.4%,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으로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8.1%로 나타났다.

<표 4-14> 코로나19 발생 전, 후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

구분	빈도	백분율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	96	21.4
그립고 가고 싶은 곳	202	45.1
굳이 안 가도 되는 곳	81	18.1
기타	69	15.1
전체	448	100

4)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습의 어려움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의 어려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혼자 하는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의 어려움 차이를 살펴본 결과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일수록 혼자 하는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서 하는 공부의 어려움 여부

구분	2021년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가 힘들었나요?			t/F
	남	여	전체 응답자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그렇다	76(31.4)	108(50.5)	184(40.4)	4.212***
아니다	166(68.6)	106(49.5)	272(59.6)	
전체	242(100.0)	214(100.0)	456(100.0)	-

***p<0.001, **p<0.01, *p<0.05

(2)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의 어려운 이유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가 힘들었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었던 이유로 ‘온라인 학습방식이 낯설어서’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혼자 앉아서 집중하기 어려워서’ 21.47%, ‘물어보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21.0%, ‘수업 이해가 잘 안 돼서’ 12.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러운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낯선 수업방식, 소통의 부재로 혼자서 학습하는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 4-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서 혼자서 하는 공부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구분	빈도(백분율)
혼자 앉아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65(21.7)
수업 이해가 잘 안 돼서	36(12.0)
물어보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63(21.0)
온라인 학습방식이 낯설어서	109(36.2)
동생을 돌봐야 해서 힘들어서	11(3.7)
온라인 수업 내용이 별로여서	8(2.7)
기타	8(2.7)
전체	300(100.0)

4. 재난과 아동 돌봄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한 이후, 아동이 가정 내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됨에 따라 가정 내 아동의 돌봄 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돌봄 상황과 아동의 홀로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였다.

1)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생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에서 아동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 항상 있다.’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를 살펴보았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 4점 척도로 조사되었고, 응답 수준에 대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이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표 4-17>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가정생활은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관해 묻는 2개 항목 중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 항상 있다.’가 77.5점으로 나타났다.

<표 4-17>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생활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합계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 항상 있다.	449	3.11(.86)
		77.5점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	439	3.27(.73)
		81.7점

2) 재난과 폭력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였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가정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되면서 보호자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아동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과 온라인상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과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여 가정폭력 목격, 온라인상 폭력 등을 주제로 살펴보았다.

(1) 가정 내 아동학대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대 피해 경험 보고율이 낮았다. 학대 행위별 보고 수준은 ‘몇 번 있었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주 있었다.’ 라고 보고한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 비율은 10.5%이며, 정서적 학대인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라는 경험 비율은 40.6%로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의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8>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

구분	빈도(백분율)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전체 응답자
나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404(89.6)	40(8.8)	7(1.6)	451(100.0)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271(60.0)	155(34.3)	26(5.8)	452(100.0)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 라고 말하거나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371(82.4)	67(14.9)	12(2.7)	450(100.0)
나를 혼자 두면 안 될 때(아플 때나, 밤 중에 등)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430(95.6)	16(3.6)	4(0.9)	450(100.0)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을 통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경험 수준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조사되었던 아동학대 조사결과와 비교하였다.

‘나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등 신체적 학대 행위는 2018 대한민국 아동 권리지수 연구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라는 정서적 학대는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와 마찬가지로 2021 코로나 19 이후 아동의 삶 조사에서도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나를 혼자 두면 안 될 때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 비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장시간 가정 돌봄의 어려움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9>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2018 vs 2021)

구분	2021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백분율	백분율
나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10.5	24.8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40.1	51.1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 라고 말하거나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17.6	30.8
나를 혼자 두면 안 될 때(아플 때나, 밤 중에 등)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4.5	2.9

(2) 가정 내 처벌과 가정폭력 경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 처벌과 가정폭력 목격 경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부모님 혹은 성인 가족으로부터 처벌 받은 경험’ 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12.5%가 처벌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처벌 경험이 있는 아동에 비해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 이 있는 아동은 36.1%로 아동 처벌 경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족폭력 목격 경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 이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 유형에 따른 가족폭력 목격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가정 내 체벌과 가정폭력 목격 경험 현황

구분		부모님 혹은 성인 가족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6(9.7)	241(90.3)	240(100.0)	68(28.3)	172(71.7)	240(100.0)
	여	29(13.8)	181(86.2)	210(100.0)	95(44.8)	117(55.2)	212(100.0)
	t/F	0.960			3.687***		
가구 유형	양부모	46(12.7)	317(87.3)	368(100.0)	134(36.8)	230(63.2)	363(100.0)
	한부모·조손	8(9.4)	77(90.6)	85(100.0)	29(33.7)	57(66.3)	85(100.0)
	소년소녀가장	1(50)	1(50)	2(100.0)	0(0)	2(100.0)	2(100.0)
	t/F	1.679			0.708		
전체 응답자		55(12.5)	395(87.8)	450(100.0)	163(36.1)	289(63.9)	452(100.0)

***p<0.001, **p<0.01, *p<0.05

(3) 온라인 폭력 및 성 착취

아동의 온라인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폭언, 악플을 받는 등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27.4%,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경험한 아동은 9.4%, 야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은 4.2%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이용 과정 중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온라인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채팅/게시판/게임/SNS활동 등 온라인상에서 욕설/폭언/악플을 받아봤다.’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도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21> 온라인상 폭력 및 성 착취 경험 현황

구분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상에서 욕설/폭언/악플을 받아봤다.		
		예	아니오	전체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성별	남	74(30.6)	168(69.4)	242(100.0)
	여	51(23.8)	163(76.2)	214(100.0)
	t/F	-1.613**		
가구 유형	양부모	95(25.8)	273(74.2)	368(100.0)
	한부모·조손	29(33.7)	57(66.3)	86(100.0)
	소년소녀가장	1(50)	1(50)	2(100.0)
	t/F	1.351		
전체 응답자		125(27.4)	331(72.6)	456(100.0)
구분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		
		예	아니오	전체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성별	남	16(3.6)	226(96.4)	242(100.0)
	여	27(12.6)	187(87.4)	214(100.0)
	t/F	2.197***		
가구 유형	양부모	33(9.0)	335(91.0)	368(100.0)
	한부모·조손	9(10.5)	77(89.5)	86(100.0)
	소년소녀가장	1(50)	1(50)	2(100.0)
	t/F	2.032		
전체 응답자		43(9.4)	413(80.6)	456(100.0)
구분		컴퓨터/스마트폰, 잡지 등을 통해 아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		
		예	아니오	전체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성별	남	8(3.3)	234(96.7)	242(100.0)
	여	11(5.1)	203(94.9)	214(100.0)
	t/F	0.977		
가구 유형	양부모	15(4.1)	353(95.9)	368(100.0)
	한부모·조손	4(4.7)	82(95.3)	86(100.0)
	소년소녀가장	0(0)	2(100.0)	2(100.0)
	t/F	0.072		
전체 응답자		19(4.2)	437(95.8)	456(100.0)

***p<0.001, **p<0.01, *p<0.05

5. 재난과 아동의 주체성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예방 노력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 80점 이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등을 잘 지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 아동들이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예방 노력

구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켰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다.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2)	6(1.3)
그렇지 않다	18(4.0)	69(15.4)
그렇다	283(62.9)	255(56.8)
매우 그렇다	148(32.9)	119(26.5)
평균(표준편차)	3.28(0.545)	3.08(0.682)
합계	82점	77점
전체	450(100)	449(100.0)

2) 재난에 대한 정보 획득

(1) 코로나19 인지 수준

코로나19에 대한 아동의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코로나 인지 수준은 아동의 성별, 가구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가 코로나19 인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코로나19 인지 정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성별	남	3.52(0.86)	-1.391
	여	3.63(0.79)	
가구 유형	양부모	3.58(0.82)	0.256
	한부모·조손	3.51(0.84)	
	소년소녀가장	3.50(0.70)	
전체 응답자		3.57(0.82)	-

***p<0.001, **p<0.01, *p<0.05

(2) 코로나19 정보 획득 주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님이나 가족을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응답이 6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와 ‘교육기관(학교)을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가 66.6점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정부(국가)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라는 응답이 62.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코로나19 정보 획득 주체

구분	가구 유형			전체 응답자	t/F
	양부모	한부모 조손	소년 소년가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통해 팬데믹(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3.50(0.90)	3.23(1.03)	3.50(0.70)	3.45(0.93)	2.917
	70.0점	64.6점	70.0점	69.0점	
나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팬데믹(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3.34(1.03)	3.30(1.00)	3.00(1.41)	3.33(1.02)	0.164
	66.8점	66.0점	60.0점	66.6점	
나는 정부(국가)를 통해 팬데믹(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3.11(0.98)	3.03(0.93)	3.50(0.70)	3.10(0.97)	0.417
	62.2점	60.6점	70.0점	62.0점	
나는 교육기관(학교)을 통해 팬데믹(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3.32(0.87)	3.26(1.01)	4.50(0.71)	3.31(0.90)	1.865
	66.4점	65.2점	90.0점	66.2점	

***p<0.001, **p<0.01, *p<0.05

3) 재난과 아동 참여

(1) 현재 등교 여부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45.8%, ‘일주일에 2~3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16.9%, ‘2주 또는 3주마다 1주일씩 번갈아 학교에 나가고 있다.’ 26.7%, ‘나가는 일정이 지금까지 일정하지 않지만 나가기 시작했다.’ 9.6%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62.7%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학교에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5>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매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209	45.8
일주일에 2~3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77	16.9
2주(또는 3주)마다 1주씩 번갈아 학교에 나가고 있다.	122	26.8
나가는 일정이 지금까지 일정하지 않았지만 나가기 시작했다.	44	9.6
또래 친구들은 나가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는 나를 아직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	0	0
기타	44	0.9
전체	456(100)	

(2) 등교 수업으로 인한 걱정

지속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온라인 등교가 계속되면서 학습의 질과 연간 등교일수를 맞추기 위해 순차적 등교 개학을 시작했다. 현재 등교 개학으로 인해 아동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들을 확인해보았다.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 분포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36.7%로 가장 많았고, ‘수업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불편함’ 22.4%, ‘학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6>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수업으로 인한 걱정

구분	빈도(백분율)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167(36.7)
학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65(14.3)
학교 등교가 중단되지 않고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52(11.4)
이전과 다른 학교 분위기 속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13(2.9)
수업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불편함	102(22.4)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하며 진행하는 데서 오는 혼란스러움	9(2.0)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15(3.3)
기타	32(7.7)
전체	455(100)

제3절 재난과 아동 발달

1. 코로나19와 아동의 일상 만족도⁴⁾

1)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일상 변화 정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일상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7>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일상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가정유형에 따라 일상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 변화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성별	남	2.68(0.93)	1.819
	여	2.53(0.83)	
가구 유형	양부모	2.59(0.87)	0.836
	한부모 · 조손	2.72(0.94)	
	소년소녀가장	2.50(0.70)	
전체 응답자		2.61(0.88)	-

***p<0.001, **p<0.01, *p<0.05

4)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 변화 정도를 1~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부정적으로 변함, 2=조금 부정적으로 변함, 3=변화하지 않았음, 4=조금 긍정적으로 변함, 5=긍정적으로 변함)

2)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 상태 변화⁵⁾ 정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건강 상태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가구 유형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건강 상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건강 상태 변화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 상태 변화

구분		평균(표준편차)	t/F
성별	남	3.09(0.70)	1.537*
	여	3.00(0.64)	
가구 유형	양부모	3.05(0.69)	2.456
	한부모 · 조손	3.07(0.57)	
	소년소녀가장	2.00(1.41)	
전체 응답자		3.05(0.67)	-

***p<0.001, **p<0.01, *p<0.05

5) 코로나19 발생 건강 상태 변화 정도를 1~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매우나빠짐, 2=나빠짐, 3=비슷함, 4=좋아짐, 5=매우좋아짐).

3) 코로나19와 안정감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확인하였다. ‘집에선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가 평균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가 평균 75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들의 안정감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와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 아동이 이후 아동에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89.8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평균 82점으로 7.8점 감소하였다.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0.7점, 3.7점 상승했다.

<표 4-29> 코로나19와 안정감

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4.2)	2(0.4)	15(3.3)	14(3.1)
그렇지 않다	57(12.6)	17(3.8)	64(14.2)	56(12.4)
그렇다	278(61.4)	228(50.4)	267(59.1)	266(59.0)
매우 그렇다.	99(21.9)	205(40.5)	106(23.5)	115(25.5)
평균(표준편차)	3.0(0.71) 75점	3.4(0.58) 82점	3.0(0.71) 75점	3.0(0.70) 75점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	3.6 89.8점	3.0 74.3점	2.9 71.3점
전체	453(100)	452(100)	452(100)	451(100)

***p<0.001, **p<0.01, *p<0.05

4)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활 만족도⁶⁾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생활 만족도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했다. 아동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0>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족도

구분	성별		t/F	가구 유형			t/F	전체
	남자	여자		양부모	한부모 · 조손	소년 소년가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집안 분위기	4.01 (0.92)	3.81 (0.94)	2.342	3.95 (0.89)	3.76 (1.09)	5.00 (0.00)	2.0405	3.91 (0.93)
부모님과의 관계	4.14 (0.88)	3.98 (0.95)	1.801	4.09 (0.90)	3.96 (0.99)	5.00 (0.00)	1.150	4.06 (0.92)
친구들의 관계	4.04 (0.89)	3.85 (0.99)	2.126	3.96 (0.94)	3.90 (0.96)	4.00 (0.00)	0.128	3.95 (0.94)
친구들과의 연락	3.87 (1.02)	3.81 (1.01)	0.648	3.83 (0.99)	3.89 (1.10)	4.00 (0.00)	0.126	3.84 (0.94)

***p<0.001, **p<0.01, *p<0.05

5)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계유지 방법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계유지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4-31>과 같다.

관계유지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관계를 유지한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화하면서’라는 응답이 28.6%,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보다는 온라인,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1>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계유지 방법

구분	빈도(백분율)
전혀 하지 않는다.	44(4.8)
전화하면서	260(28.6)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28(3.1)
문자메세지를 통해서(카카오톡, 페이스북, SNS 등)	308(33.9)
영상통화를 통해서	96(10.6)
만나서 어울리거나 함께 산책하면서	89(9.8)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59(6.5)
기타	24(2.6)
전체	908(100)

제4절 코로나19와 아동의 적응

1.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정⁷⁾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감정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4-32>와 같다.

아동 성별에 따라 감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불안함, 외로움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 슬픔, 열정 가득함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가구 유형별에 따른 감정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2>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감정 정도

구분	성별		t/F	가구 유형			t/F	전체
	남자	여자		양부모	한부모 조손	소년 소년가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행복한	3.71(0.91)	3.72(0.88)	-.18*	3.73(0.87)	3.67(0.99)	4.00(1.41)	0.22	3.72(0.90)
슬픈	2.56(0.93)	2.89(0.87)	-3.89*	2.71(0.92)	2.77(0.93)	2.00(0.00)	0.79	2.72(0.92)
불안한	2.23(0.97)	2.68(1.21)	-4.43**	2.46(1.11)	2.39(1.09)	2.00(1.41)	0.28	2.44(1.11)
열정 가득한	3.44(1.03)	3.03(1.00)	4.13*	3.25(1.02)	3.29(1.11)	3.00(1.41)	0.11	3.25(1.03)
지루한	3.22(1.12)	3.28(1.06)	-.54	3.24(1.09)	3.30(1.11)	3.50(0.70)	0.15	3.25(1.10)
걱정스러운	2.52(1.04)	2.84(1.06)	-3.16	2.69(1.04)	2.65(1.13)	1.00(0.00)	2.54	2.67(1.06)
외로운	2.20(1.09)	2.54(1.25)	-3.09**	2.34(1.18)	2.45(0.13)	1.50(0.70)	0.82	2.36(1.18)
공포스러운	1.87(1.02)	2.03(1.06)	-1.65	1.95(1.00)	1.91(1.17)	3.00(2.82)	1.04	1.95(1.04)

***p<0.001, **p<0.01, *p<0.05

7)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감정은 1-5점으로 측정하였다(1=전혀 느끼지 않음, 3=보통, 5=매우 많이 느낌)

2.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정적인 생각

코로나19 이후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2주 이상 부정적인 생각인 슬픔과 자살에 생각에 대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33>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정적인 생각

구분	남자	여자	전체	t/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근 2주 동안 슬픔이 계속되거나 죽고 싶은 생각 여부	1.92(0.26)	1.83(0.39)	1.88(0.32)	2.641***

***p<0.001, **p<0.01, *p<0.05

3. 코로나19 발생과 걱정 및 어려움⁸⁾

1) 코로나19 발생과 걱정

코로나19 발생 이후 걱정 정도를 4가지 하위 항목으로 측정 결과는 <표 4-34> 와 같다. 아동 성별에 따라 걱정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내가 코로나 걸릴까 봐’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 유형에 따라 걱정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우리 집 경제적 상황’ 변화가 $p<0.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 대부분 자신과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걱정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걱정 정도

구분	성별		t/F	가구 유형			t/F	전체
	남자	여자		양부모	한부모 · 조손	소년 소년가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2.73 (0.88)	2.97 (0.78)	-3.10***	2.89 (0.83)	2.64 (0.88)	2.50 (0.70)	3.201*	2.84 (0.84)
내가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2.89 (0.87)	3.08 (0.77)	-2.40	2.98 (0.81)	2.96 (0.91)	3.50 (0.70)	0.408	2.98 (0.83)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	2.10 (0.97)	2.12 (0.96)	-2.84	2.05 (0.95)	2.35 (0.95)	2.00 (1.41)	3.270*	2.11 (0.96)
학교에서의 학업 상황 변화	2.30 (0.88)	2.64 (0.90)	-4.07	2.44 (0.91)	2.52 (0.88)	3.00 (1.41)	0.634	2.46 (0.91)

*** $p<0.001$, ** $p<0.01$, * $p<0.05$

8) 코로나19 발생 이후 걱정은 1~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걱정하지 않음, 2=걱정하지 않음, 3=조금 걱정함, 4=매우 걱정함)

2)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 하는 것’이 2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이 20.1%,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이 14.3%,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계속 걱정하면 보내는 것’ 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5>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구분	힘든 정도			총계 ⁹⁾ 빈도(백분율)	순 위
	1순위	2순위	3순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 하는 것	393	240	55	688(25.3)	1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	339	134	74	547(20.1)	2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것	135	170	83	388(14.3)	3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계속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 것	144	128	68	340(12.5)	4
집안에서의 오랜 생활로 답답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	63	60	66	189(7.0)	6
인터넷 사용 및 게임, SNS 활동, TV 보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	108	76	41	225(8.3)	5
평일 성인 보호자 없이 나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있어야 하는 것	78	46	29	153(5.6)	7
부모님 사이에 혹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것	51	28	16	95(3.5)	8
기타	24	14	12	50(1.8)	9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게 변화되는 것	12	18	13	43(1.6)	10
전체	1,347	914	457	2,718(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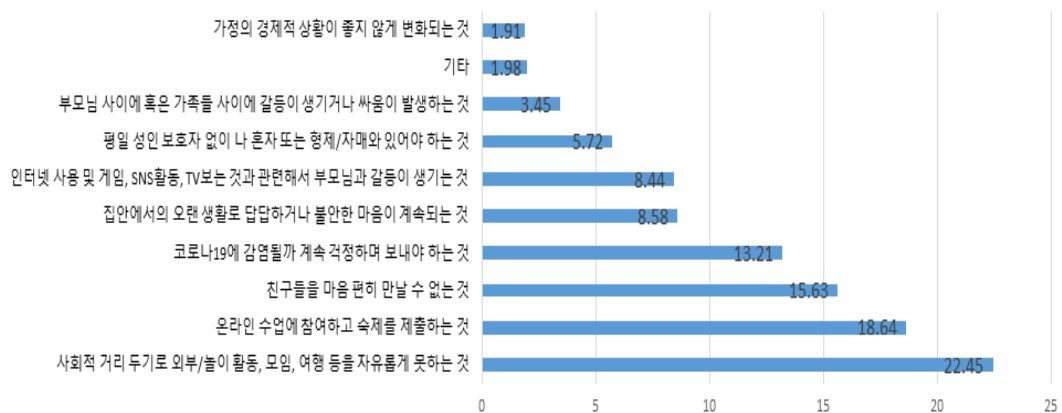
***p<0.001, **p<0.01, *p<0.05

9) 1순위(명)*3점, 2순위(명)*2점, 3순위(명)*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 산출

<그림 4-1>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한과 온라인 수업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

<그림 4-1>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단위:%)



3)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관련 이슈 어려움¹⁰⁾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관련 이슈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표 4-36>과 같다. 코로나19 문제가 평균 3.13(SD=1.21)로 나타나 아동들이 ‘코로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라 공부 문제, 친구 문제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구 유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6>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정도

구분	성별		t/F	가구 유형			t/F	전체
	남자	여자		양부모	한부모 · 조손	소년 소녀가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부문제	2.66 (1.14)	2.90 (1.07)	-2.27*	2.76 (1.10)	2.82 (1.18)	3.00 (1.41)	0.13	2.77 (1.11)
친구문제	2.10 (0.97)	2.53 (1.08)	-4.41*	2.31 (1.04)	1.08 (0.11)	0.70 (0.50)	0.71	2.30 (1.04)
가족문제	1.92 (0.95)	2.16 (1.05)	-2.53	2.01 (0.96)	2.16 (1.17)	1.41 (1.00)	0.75	2.04 (1.01)
외모문제	2.02 (1.07)	2.58 (1.14)	-5.36	2.28 (1.10)	2.33 (1.26)	1.00 (0.00)	0.71	2.29 (1.13)
경제적문제	2.07 (1.03)	2.20 (1.03)	-1.30	2.11 (1.02)	2.25 (1.08)	1.50 (0.70)	1.02	2.13 (1.03)
코로나문제	3.02 (1.26)	3.24 (1.14)	-2.00	3.10 (1.18)	3.23 (1.31)	2.50 (2.12)	0.64	3.12 (1.21)

*** $p<0.001$, ** $p<0.01$, * $p<0.05$

10)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은 1-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힘들지 않음, 2=힘들지 않음, 3=보통, 4=많이 힘들, 5=매우 많이 힘들).

코로나19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와 비교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삶의 어려움에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경제적 문제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1.6(SD=2.44)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평균 2.13(SD=1.03)로 0.5점 증가하여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4-37>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정도(2018 vs 2021)

구분	2021 코로나19와 아동 삶	2018 아동권리지수(스트레스) 초등 고학년생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공부문제	2.77(1.11)	4.1(2.98)
친구문제	2.30(1.04)	2.8(2.89)
가족문제	2.04(1.01)	2.0(2.64)
외모문제	2.29(1.13)	2.3(2.85)
경제적문제	2.13(1.03)	1.6(2.44)
코로나문제	3.12(1.21)	

4.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해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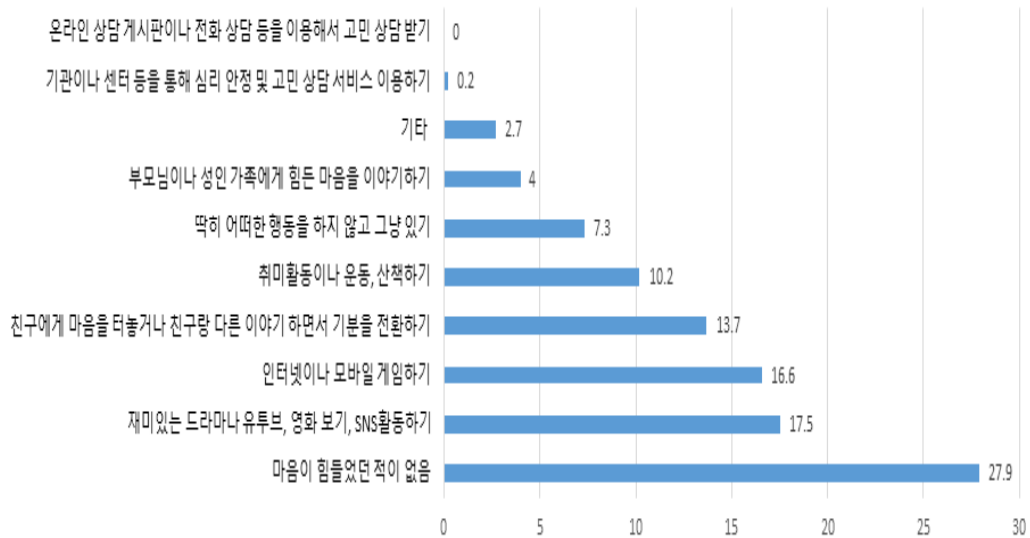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마음의 어려움을 나아지게 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조사한 결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음’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 보기, SNS 활동하기’가 17.5%,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 하기’가 16.6%,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 하면서 기분 전환하기’ 13.7%, ‘취미 활동이나 운동, 산책하기’가 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8>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해소 방안

구분	빈도(백분율)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음	126(27.9)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 보기, SNS 활동하기	79(17.5)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하기	75(16.6)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	62(13.7)
취미활동이나 운동, 산책하기	46(10.2)
딱히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기	33(7.3)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기	18(4.0)
기타	12(2.7)
기관이나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안정 및 고민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1(0.2)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해서 고민 상담받기	0(0)
전체	452(100)

<그림 4-2>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해소 방안

(단위: %)



제5절 재난과 아동 정책

1. 아동 재난정책에 대한 아동 욕구

아동의 재난정책 욕구를 조사한 결과 ‘위생용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해주기’가 2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휴식하거나 놀이하기 위한 장소와 도구 지원해주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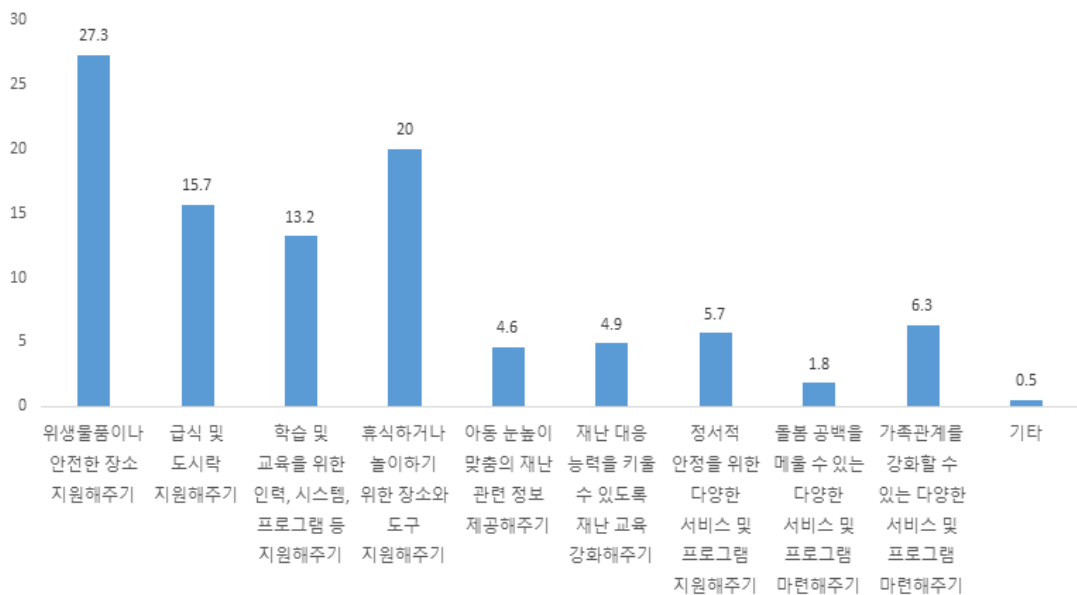
20.0%, ‘급식 및 도시락 지원해주기’가 15.7%,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인력, 시스템, 프로그램 등 지원해주기’가 13.2%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9> 아동 재난정책에 대한 욕구

구분	빈도			총계	
	1순위	2순위	3순위	점수(%)	순위
위생 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해주기	540	136	64	740(27.3)	1
급식 및 도시락 지원해주기	198	178	50	426(15.7)	3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인력, 시스템, 프로그램 등 지원해주기	147	130	80	357(13.2)	4
휴식하거나 놀이하기 위한 장소와 도구 지원해주기	258	202	82	542(20.0)	2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해주기	33	62	30	125(4.6)	8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난 교육 강화해주기	42	46	44	132(4.9)	7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해주기	48	66	39	153(5.7)	6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마련해주기	15	16	17	48(1.8)	9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마련해주기	66	60	44	170(6.3)	5
기타	6	6	1	13(0.5)	10
총계	1,348	898	453	2,693(100)	-

<그림 4-3> 아동 재난정책에 대한 욕구

(단위: %)



제6절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지역사회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관련 돌봄 및 교육기관의 운영이 중지되었을 아동이 이용했던 지역사회 이용기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40>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37.2%가 ‘학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예체능학원’ 22.2%, ‘이용했던 기관이 없다가’ 10.9%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이용기관을 살펴보면 양부모, 한부모, 조손가정에 아동들도 학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다음으로 ‘예체능학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부모 가정 및 한부모, 조손가정에서 ‘이용했던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9.9%, 16.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의 50% 이상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0>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지역사회 이용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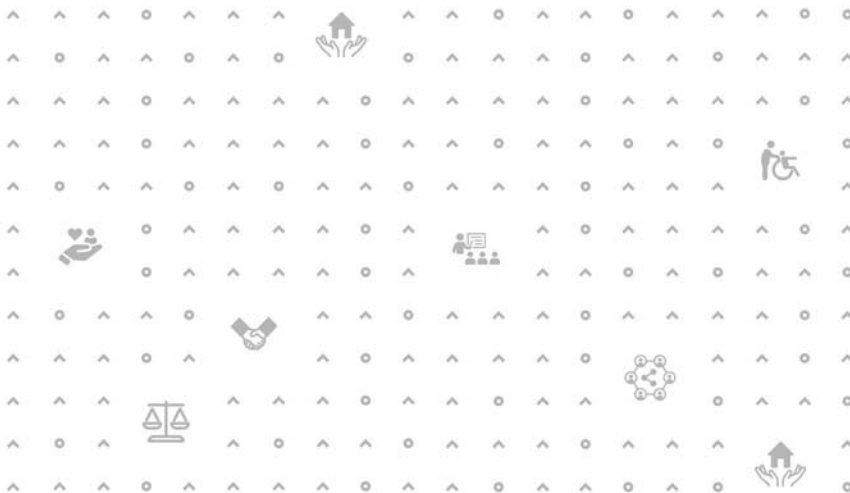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응답자		가구 유형					
	빈도 (백분율)	순위	양부모	순위	한부모 · 조손	순위	소년 소녀가장	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원	259 (37.2)	1	217(37.7)	1	42(35.6)	1	0(0.0)	3
예체능학원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155 (22.2)	2	130(22.6)	2	23(19.5)	2	2(66.7)	1
지역아동센터	35 (5.0)	6	26(4.5)	6	9(7.6)	5	0(0.0)	3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10 (1.4)	9	7 (1.2)	9	3 (2.5)	7	0 (0.0)	3
종합사회복지관	12 (1.7)	8	8 (1.4)	8	0 (0.0)	9	0 (0.0)	3
사회서비스(바우처)	8 (1.1)	10	8 (1.4)	8	0 (0.0)	9	0 (0.0)	3
공부방	74 (10.6)	4	62 (10.8)	3	12 (10.2)	4	0 (0.0)	3
마을도서관	44 (6.3)	5	39 (6.8)	2	4 (3.4)	6	1 (33.3)	2
이용했던 기관이 없다	76 (10.9)	3	57 (9.9)	4	19 (16.1)	3	0 (0.0)	3
기타	24 (3.4)	4	22 (3.8)	7	2 (1.7)	8	0 (0.0)	3
전체	697(100.0)		576(100.0)		118(100.0)		3(100.0)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로 나뉘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 인류 역사상 팬데믹에 속한 질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과 1918년 전 세계에서 5,00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명이 사망한 홍콩독감 등이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설립된 1948년 이래 지금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등 세 차례뿐으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사상 유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WHO 사무총장은 2020년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이 나온다 해도 이것만으로 팬데믹이 끝나지 않으며, 이제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정상(Normal)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돌아갈 수도 없다.’ 라고 말하였다(뉴스1, 2020).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체온 측정과 방역 명부 작성 등 생활 속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지며 사람들의 인식은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지 않다.’ 라는 것을 인지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마지막으로 아니라 또 다른 팬데믹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사상 유래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그동안 대면적 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해온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팬데믹 기간 대전지역 아동 삶의 실태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실태를 설문조사 했으며, 그중 유효답변을 한 457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의 전달과 역할에 대해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1절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의 삶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본다. 아동은 ‘작은 성인’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평등한 인간으로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였다. 아동은 보호와 자선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적극적인 주체로 아동의 권리 실현은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의 발달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파이낸셜뉴스, 2021).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하였고, 그 준수를 위해 아동복지 정책의 기반 삼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4대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인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의 삶을 아동의 4대 기본권에 기초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1.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 실태

먼저 생존권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표 3-2 참조>에서 소영역의 식습관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식습관 조사에서 47.5%의 아동들이 ‘1주일에 5일 이상 먹는다’고 대답을 하였고 4.2%의 아동이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유형에 따라 아동의 식생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정유형별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양부모 가정이 한부모·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보다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호에 취약한 가구 유형의 아동이 불규칙한 식습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전체 응답자의 66.0%가 ‘1주일에 1~2번 인스턴트와 편의점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 아동의 식습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1주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실시한 본 조사에서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을 ‘1주일에 5일 이상’ 섭취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1.8%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에서도 친환경 식품과 유기농 식품 지원으로 관리 지원하던 아동 섭취 식품의 질적 하락에 따른 건강 저해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결식이유에 대한 경향성을 위해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에서 조사됐던 결식이유와 비교했을 때 ‘3끼 모두 챙겨 먹음’을 응답한 아동은 본

조사에서 37.9%지만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는 50.1%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결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 아동들의 발달에 기본이 되는 식생활의 질과 결식률이 코로나19 이후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어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별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농산물 식품 꾸러미 지원, 상품권 지원을 하며 최소한의 결식예방을 위한 지원은 하였으나 건강한 발달이나 식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였다. 주의하여 볼 것은 2018년 아동권리지수에서 조사한 결식의 이유에서 ‘집에 먹을 음식이 많이 없어서’가 7위였다면 2021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 조사에서는 5순위로 아동들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감정 정도를 측정한 결과<표 4-32 참조> 부정적 감정의 경우 지루한 감정을 많이 느꼈으며, 슬픈, 걱정스러운, 불안한, 외로운, 공포스러운 순으로 느꼈다. 긍정적 감정으로 행복한, 열정 가득한 감정 순으로 느꼈으며, 전체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불안함, 외로움을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 슬픔, 열정 가득함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녀아동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2주간 동안 슬픔이 계속되거나 죽고 싶은 생각 여부’에서도 남녀아동간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남자아동이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의 걱정 정도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가 가장 높았고,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학교에서의 학업 상황 변화’, ‘우리 집의 경제적 상황’ 순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이 25.3%로 가장 높으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 20.1%,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다는 것’ 14.3%,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계속 걱정하면서 보내는 것’ 12.5% 순으로 나타났는데, 아동기 발달과정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는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이나 태도를 학습하여 장래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양식을 학습하고 인간관계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로 교우관계의 형성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큰 요소가 될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결하여 살펴볼 조사내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 관련

이슈의 어려움에서 코로나문제, 공부문제, 친구문제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를 위해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 지수 연구와 비교한 결과 삶의 어려움에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경제적 문제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1.6점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평균 2.13로 0.5점 증가하여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아동도 가정의 경제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 해소 방안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조사한 결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음’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 보기, SNS활동하기’ 17.5%,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하기’ 16.6%, ‘친구에게 마음을 터 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하면서 기분 전환하기’ 13.7%, ‘취미활동이나 운동, 산책하기’ 10.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기관이나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안정 및 고민상담 서비스 이용하기’가 0.2%,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해서 고민 상담받기’는 0%로 전문 상담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역할 확대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 발달권 실태

발달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로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라는 상황에서 대전시 거주 아동의 온라인 학습 지원과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가활동 실태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아동의 수면시간 변화에서 42.9%의 응답자가 수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놀이 및 휴식기간에서 스마트폰/인터넷 게임 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53.4%의 아동이 증가했다고 답하였고 이를 제외한 놀이 및 휴식시간이 등교할 때보다 적어졌다고 답한 아동은 18.1%로 아동들의 주 여가활동이 온라인 게임 활동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주 여가활동을 비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아동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친구 만나기’ 이고 그 뒤로 ‘컴퓨터/모바일 게임 하기’,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순이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컴퓨터/모바일 게임 하기’,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아동의 일상에 많은 변화

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실태조사에서 참여 아동의 절반에 해당하는 44.7%가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갈등 발생에서 장시간 스마트폰 및 인터넷 게임 문제로 가족 갈등 발생 비율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의해 아동의 여가활동에서 ‘친구들 만나기’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아동의 활동 비중이 약 18.1%에 해당 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4.8%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전과 비교했을 때 약 7.5% 정도 높아졌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아동들의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해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것은 ‘수업 진행 시 도움 요청 존재’에서 평균 74.8점으로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질의 및 응답에 대한 편리성’에서 평균 71.8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아동들이 온라인으로 혼자 학습하며 학습의 어려움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고 ‘원활한 홈페이지 접속 및 동영상 시청’이 평균 72점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습 도움과 함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나 환경(컴퓨터, 인터넷)’에 대해서는 83.5점으로 아동들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스마트패드, 컴퓨터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 후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참여 아동 47.6%가 ‘변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중 45.1%가 ‘그립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응답하였고 ‘코로나 감염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아동은 21.4%이었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굳이 안가도 되는 곳’으로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8.1%로 분석되었다. 2020년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대전지역 청소년 학업중단율은 0.6%(980명)으로 7개시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아동의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가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에 참여한 대전지역의 아동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의 변화를 조금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하였으며, 건강 상태 변화 정도에서 남자아동이 건강 상태 변화를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가 평균 8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분석결과 대

체적으로 대전지역 아동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안정감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와 비교한 결과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라고 응답한 아동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89.8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평균 82점으로 7.8점 감소하였다.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라고 응답한 아동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0.7점, 3.7점 상승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가지 생활-집안분위기, 부모님과 관계, 친구들의 관계, 친구들과의 연락-만족도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계유지 방법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가 33.9%로 가장 높았고, ‘전화하면서’라는 응답이 28.6%, ‘영상통화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10.6%로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보다는 온라인,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권 실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며 학교 등교 중지, 온라인 개학이 되며 아동에 대한 보육과 돌봄의 중심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동되며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 된 것이 아동의 돌봄에 대한 것이었다. 아동의 돌봄은 아동권리에서 보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호권에는 돌봄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방임, 차별, 아동학대,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발생 이후 아동이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호자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아동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과 온라인상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현황에서 신체적 학대 경험(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림)은 10.5%, 정서적 학대 경험(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침)은 40.6%로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의 경험 또한 3.6%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을 통해 보고된 아동학대의 경험 수준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학대의 경향성 비교를 위해 2018 대한민국 아동 권리지수 연구와 비교를 하였다<표 4-19 참고>. 그 결과 신체적 학대는 본 연구 분석결과 10.5%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4.8%보다 낮게 보고되었다. 주의해서 볼 것은 ‘나를 혼자 두면 안 될 때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항목으로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 비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정 내 처벌과 가정폭력 경험에서도 ‘부모 또는 성인에게 체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아동은 12.5%,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을 가진 아동은 36.1%로 아동 체벌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학대 유형과 가정 내 폭력 경험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장시간 가정 돌봄의 어려움과 맞물려 나타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모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원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온라인 개학과 함께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활용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의 폭력 및 성 착취의 학대 경험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폭언, 악플을 받는 등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27.4%,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경험한 아동’은 9.4%, ‘야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은 4.2%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4.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 참여권 실태

아동의 권리에서 참여권이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참여권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 80점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등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주로 ‘부모님이나 가족을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와 ‘교육기관(학교)을 통해 팬데믹에 정보를 얻고 있다’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정부(국가)를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라는 응답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매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45.8%, ‘2주 또는 3주마다 1주일씩 번갈아 학교에 나가고 있다’ 26.7%, ‘일주일에 2~3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16.9%, ‘나가는 일정이 지금까지 일정하지 않지만 나가기 시작했

다’가 9.6%로 조사대상의 62.7%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학교에 가고 있었다. 현재
등교 개학으로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들은 ‘코로나19에 감염 될 수 있을지도 모른
다는 걱정’이 36.7%로 가장 많았고 ‘수업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두기를 계속해
야 하는 불편함’, ‘학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순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우리 지역 아동들이 원하는 욕구로 가장 높은 것은 27.3%의
‘위생용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해주기’ 였는데 이는 팬데믹 초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앞서 결과에서 말한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묻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
낀다.’와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2가지 문항에서 코
로나19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 비교 결과 코로나 19 발생 이후 보호감을 더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은 것은 팬
데믹이라는 재난상황의 불확실성과 불안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휴식하거나 놀이기 위한 장소와 도구 지원해주
기’ 20.0%, ‘급식 및 도시락 지원해주기’가 15.7%,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인력, 시스
템, 프로그램 등 지원해주기’ 13.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아동 관련 돌봄 및 교육기관의 운영이 중지되었을 때 아동이 이용했던
지역사회 이용기관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2%가 ‘학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
다. ‘예체능학원’은 22.2%로 약 59.4%의 높은 비율의 아동이 사교육 기관을 이용한 것
으로 조사 되었다. 그 외 ‘이용했던 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0.9%인데 이중 한
부모·조손가정의 아동은 16.1%로 양부모 가정 아동 9.9%보다 높은 비율의 아동이 코로
나19 기간 동안 어떤 기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빅인즈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을 분석(이세원, 202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대 이슈는 돌봄과 학습격차로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조손가정 같은 취약가정 아동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
기화될수록 아동의 보호 시스템이 더 잘 작동했다기보다는 문제 양상들이 더 많아지는 경
향을 보인 것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는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도
돌봄과 학습지원을 위해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게 되며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들의 고충
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동안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과 학습지원을 하던 지역아동센터, 복지
관,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운영을 중지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중고등학생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둘째,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한 아동의 생활실태 연구를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함께 하지 못하여 통합적 실태 파악에 부족함이 있다.

셋째, 연구자가 최대한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학생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자치구별 설문 참여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팬데믹 기간 아동의 기본적 안전과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알 수 있듯 아동의 결식률이 증가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이 원하는 욕구로 가장 높은 것은 ‘위생용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해주기’로 기본 생존과 안전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 하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코로나19로 끝나지 않고 언제고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성장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은 영양과 식품 섭취에 큰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가 폐쇄되거나 휴원하며 돌봄 공백에 놓인 아동들이 매 끼니 적절하게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아동기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이후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 인으로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시만의 방역 단계별 아동복지기관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기존의 대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였다고 본다.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공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장기간 휴교하거나 휴원하면서 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다. 조사 참여 아동의 50%가 등교하지 않을 때에도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할 때 지원되지 못하고 학원 등 영리 기관을 이용하게 되며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취약계층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

영에 관한 대전시민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와 방역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청과 시교육청, 외 아동복지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현장 실무자로 지켜본바 코로나19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학습, 현금/현물, 식사(건강, 식품), 방역, 생활용품, 상담 등 매우 포괄적이며 수요자의 필요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서의 지원 대상 및 지원항목 중복의 문제점을 노출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성을 느꼈다. 평상시 취약한 계층은 위기 상황에서 받는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집단 또한 팬데믹과 같은 지속적인 위기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 이에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구축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각 기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공유로 중복되지 않는다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아동의 생활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이슈로 돌봄과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지만 이는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가족관계, 심리정서적 안정감 등은 가정과 지역사회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김민희, 2021)이기 때문이다. 아동들은 온라인 개학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해 더욱 친밀하게 사용하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온라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과도한 사용 등에 대한 예방적 교육에 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춰 아동에게 즐거운 학교 만들기 문화를 제공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 변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 예를 들면 ‘온라인 학습’, ‘화상회의의 일상화’,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 등 천천히 이루어지던 변화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며 더 급격하게 변화하며 이제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되어 새로운 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 삶의 변화를 이해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대처 방안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21). “학생·학부모·교원 71% ‘코로나로 학력격차·사교육 더 심화’.” 보도자료(2021/10/04).
- 공주은(2020).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플러스(2021). “[2021 국감]돌봄체계 ‘일원화’ 갈 길 멀다...초등돌봄교실 10.9%, 지역 아동센터 4.6%.” 보도자료(2021/11/18).
- 김경근(2020).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 한국의 사회동향 2020. pp.149-160.
- 김동희(2021). 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품질이 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희(2021). 코로나19 시기의 취약계층 학생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1년 제11권 제2호 pp.153-175.
- 김선숙, 김진숙(2020). Covid 19상황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기대: 아동복지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020, Vol. 52, 203-229.
- 김선숙, 조소연, 손은정(2020).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설문조사 분석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 김선숙(2020). 코로나19, 아동 삶의 변화와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응. 아동권리 이슈 Brief Vol. pp.07-09.
- 김영남(2009). 초등학교 아동의 권리인식과 권리옹호와의 관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태(2004). 초등학교 아동의 여가 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2020). 코로나19(COVID-19)가 초등학생의 식생활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뉴스1(2020). “WHO 사무총장 인류,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못 돌아가” 보도자료 (2020/06/26).
- _____(2021). “올해 ‘아동학대 신고’ 252% 늘어...코로나에 ‘방임’ 심각” 보도자료 (2021/05/27).
- 뉴스스(2021). “팬데믹 끝나도 ‘코로나 블루’는 수십년 지속될 수 있어” 보도자료

(2021/05/09).

손희나(2020).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린이집원장의 어려움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시사IN(2021). “코로나 2년차 학교는 여전히 ‘버전 1.0’.” 보도자료(2021/3/18).

신혜진(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호진(2021).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해석적 분석.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아동권리보장원.

아주경제(2021). “코로나19가 사교육 시장 더 키웠다.” 보도자료(2021/07/06).

연합뉴스(2020). “초등학생 평균 학원 2.3개 다녀... 월평균 사교육비 30~50만원.” 보도자료(2020/03/08).

_____ (2020). “초등생 사교육비 역대 최대 증가... ‘아이 맡길 곳 없어 학원’.” 보도자료(2020/03/10).

_____ (2020). “코로나로 학교 못가는 아이 3억명... 학습권·건강 악영향.” 보도자료(2020/12/09).

오경자(2015).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민화(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실천경험: 대구지역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실천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2021. 3. Vol.15(1):41-68.

이봉주, 장희선, 선우진희, 길보라(2020). 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 아동 재단대응 실태조사 I. 굿네이버스.

이세원(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Vol.12, No.1:2941-2954.

장연진, 서정아(2020).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분석: 학교급별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 6, 653-667.

정관영(2020).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금연, 박진화(2021). 아동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21, Vol.12,

- No.1:1447-1458.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1).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2020.12, 59-90.
- 정익중, 이수진, 정수정(2021).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중앙일보(2021). “1020 덮친 코로나 블루...아동 정신건강 비상.” 보도자료(2021/10/26).
- 충남일보(2021).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단 세 곳뿐...자치구는 뒷짐만.” 보도자료(2021/08/24).
- 최균(2020). OECD 사회지표 분석을 통한 2020년대 사회전망. 한국사회보장학회 Vol.2020 No.2, 249-266.
- 최아라(2020).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Vol.11 No.4, 통권41호:1379-1390.
- 파이낸셜 뉴스(2021).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 우리 성적표는.” 보도자료 (2021/05/24).
- 한겨레(2021). “‘전면등교’ 불안하고 우울해... ‘코로나 단절’ 앓는 학생들.” 보도자료 (2021/06/23).
- _____ (2021). “‘온라인수업’의 역설...학교폭력 줄었지만 아동학대는 늘어.” 보도자료 (2021/6/15).
- 한국일보(2021). “코로나시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도자료(2021/03/11).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지원단 <https://www.ssdj.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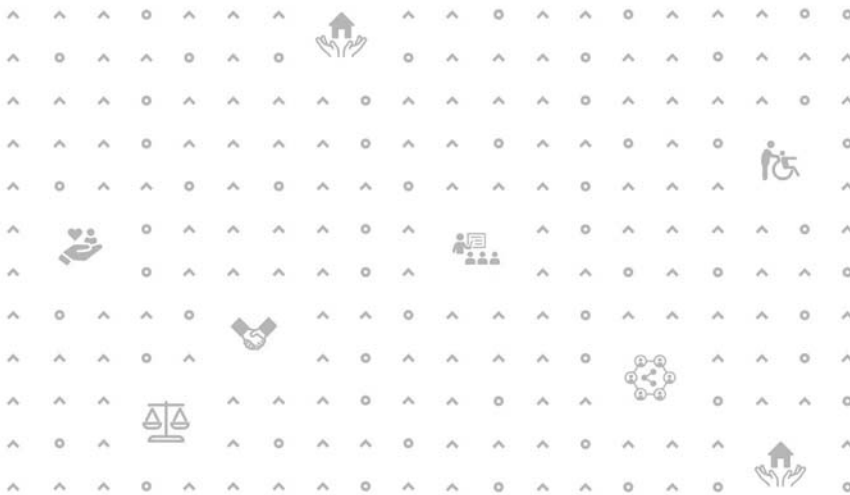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희망친구 기아대책 <https://www.kfhi.or.kr/>

UNICEF(2020).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Technical Note: Protection of Childre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Version 1.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연구

부 록



부 록

일련번호

응답 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지역 아동 삶의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방향 모색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의 아동의 삶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 ‘**참여형 현장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학생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연구 참여 동의」

본인(학생)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작성된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본인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것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참여자 (학생) _____ (서명)

연구자 _____ (서명)

2021년 9월

연구자 : 김상만, 김은영, 이윤경

학교명

학교

학년

9.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발생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여러분이 하루 중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한 활동을 보기를 보고 3가지 응답해주세요. [3순위까지 필수 선택]

보기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집안일 돕기 ②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 돌보기 ③ 학습(학교 정규수업) 및 숙제하기 ④ 학교 정규수업 외 공부(학원, 과외 등) ⑤ 영화 및 TV, 넷플릭스, 드라마 등 보기 ⑥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활동하기(예, 퍼즐 맞추기 등) ⑦ 스포츠 및 신체활동하기 ⑧ 컴퓨터/모바일 게임하기 ⑨ SNS활동하기(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⑩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⑪ 친구들 만나기 ⑫ 아무것도 하지 않기, 쉬기	가.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 등교 및 등원할 때			
	나. 코로나19발생 이후 (2020년3월~2021년8월) 등교 및 등원하지 않을때			

10.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음 중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하나만 선택]

- ① 관광활동(가족여행 및 캠핑,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놀이공원/식물원 가기 등)
 ② 스포츠활동 참여 및 관람(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경기장 가기 등)
 ③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관람(미술활동, 악기연주, 영화/연극 보기, 박물관 가기 등)
 ④ 기타 ()

11. 다음은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그 환경에 대해 묻는 항목들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선생님과 소통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1	2	3	4
② 학교의 변화 및 공지, 안내 사항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③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이 진행되어도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1	2	3	4
④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하다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⑤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은 관심을 가진다.	1	2	3	4
⑥ 수업을 듣기 위한 도구나 환경(컴퓨터, 인터넷)은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⑦ 수업을 들을 때 홈페이지 등에 접속은 잘 되었고 동영상의 버벅거림 등은 없다.	1	2	3	4
⑧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	1	2	3	4
⑨ 수업에 대한 숙제의 양과 난이도는 적절하다.	1	2	3	4
⑩ 수업에 대한 숙제 제출의 어려움은 없다.	1	2	3	4

12.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여러분은 인터넷 게임이나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 적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13. 코로나19 전후 ‘학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나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4.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 ①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 ② 그림고 가고 싶은 곳 ③ 굳이 안 가도 되는 곳 ④ 기타()

15. 2021년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가 힘들었나요?

- ① 그렇다(15-1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다

15-1. 2021년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가 힘들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가지만 선택]

- ① 수업 이해가 잘 안돼서
② 온라인 학습방식이 낯설어서
③ 물어보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④ 혼자 앉아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⑤ 동생을 돌봐야 해서 힘들어서
⑥ 온라인 수업 내용이 별로여서
⑦ 기타()

16. 2021년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 들을 때, 등교수업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혼자 집에서 점심 먹는 것
② 지루하고 재미없는 점
③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점
④ 접속이 자주 끊어지고 렉이 걸리는(오류가 나는)점
⑤ 숙제가 많아진 것
⑥ 출결관리가 복잡해진 것
⑦ 별 차이가 없다(힘들지 않았다).
⑧ 기타()

17. 다음은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 현재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상황에 해당하는 일치 정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①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 항상 있다.	1	2	3	4
②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	1	2	3	4

18.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이 여러분을 혼낼 때, 다음의 행동을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했는지 해당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목	전혀 없었음	몇 번 있었음	자주 있었음
① 나를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었다.	1	2	3
②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었다	1	2	3
③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거나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였다.	1	2	3
④ 나를 혼자두면 안되는 경우(아플 때나, 밤 중에 등)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19. 여러분은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 가정 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항목	예	아니오
① 부모님 혹은 성인 가족으로부터 체벌 받은 경험	1	2
② 부모님끼리, 혹은 성인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경험	1	2

20. 여러분은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온라인상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항목	예	아니오
①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상에서 욕설/폭언/악플을 받아왔다.	1	2
② 채팅/게시판/게임/ SNS 활동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적이 있다.	1	2
③ 컴퓨터/스마트폰, 잡지 등을 통해 아동이나 음란물을 본 경험이 있다.	1	2

21. 코로나19 예방 수칙 및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켰다.	1	2	3	4
②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다.	1	2	3	4

22. 여러분은 코로나19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조금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안다 ⑤ 매우 잘안다

23. 다음은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 항목에 응답해주시시오. [각 항목별 1개씩 선택]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통해 팬데믹(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1	2	3	4	5
② 나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팬데믹(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1	2	3	4	5
③ 나는 정부(국가)를 통해 팬데믹(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1	2	3	4	5
④ 나는 교육기관(학교)를 통해 팬데믹(코로나 19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잘 얻고 있다.	1	2	3	4	5

24.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에 여러분은 학교에 등교하고 있나요? [하나만 선택]

- ① 매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② 일주일에 2~3일 학교에 나가고 있다.
 ③ 2주(또는 3주)마다 1주씩 번갈아 학교에 나가고 있다.
 ④ 나가는 일정이 지금까지 일정하지 않았지만 나가기 시작했다.
 ⑤ 오래 친구들은 나가고 있지만, 우리집에서는 나를 아직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
 ⑥ 기타(_____)

25. 현재 등교수업이 시작됨으로써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

- ① 코로나19에 감염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② 학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③ 학교 등교가 중단되지 않고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④ 이전과 다른 학교 분위기 속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⑤ 수업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두기를 계속해야하는 불편함
 ⑥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데서 오는 혼란스러움
 ⑦ 친구들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⑧ 기타(_____)

26.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① 부정적으로 변함 ② 조금 부정적으로 변함 ③ 변화하지 않았음
④ 조금 긍정적으로 변함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함

27.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여러분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① 매우 나빠짐 ② 나빠짐 ③ 비슷함 ④ 좋아짐 ⑤ 매우 좋아짐

28. 다음 문장을 읽고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목	전혀그렇 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② 집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③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④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29.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여러분은 다음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각 항목별 1개씩 선택]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집안분위기	1	2	3	4	5
② 부모님과의 관계	1	2	3	4	5
③ 친구들과의 관계	1	2	3	4	5
④ 친구들과의 연락	1	2	3	4	5

30.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연락(관계)를 이어가고
있나요? [모두 선택]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전화하면서
③ 음성메세지를 통해서
④ 문자메세지를 통해서(카카오톡, 페이스북, SNS 등)
⑤ 영상통화를 통해서
⑥ 만나서 어울리거나 함께 산책하면서
⑦ 스포츠활동을 하면서
⑧ 기타 ()

31. 최근 2주 동안 여러분이 다음 감정들을 얼마나 느껴졌는지 응답해주세요.[각 항목별 1개씩 선택]

항목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음	보통	많이 느낌	매우 많이 느낌
가. 행복한	1	2	3	4	5
나. 슬픈	1	2	3	4	5
다. 불안한	1	2	3	4	5
라. 열정가득한	1	2	3	4	5
마. 지루한	1	2	3	4	5
바. 걱정스러운	1	2	3	4	5
사. 외로운	1	2	3	4	5
아. 공포스러운	1	2	3	4	5

32.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2주 이상 슬픔이 계속 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33. 코로나19 발생한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최근 1개월 동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전혀 걱정 하지 않음	걱정하지 않음	조금 걱정함	매우 걱정함
①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1	2	3	4
② 내가 아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1	2	3	4
③ 우리 집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경제적상황)	1	2	3	4
④ 학교에서의 학업 상황(공부,수업) 변화	1	2	3	4

34.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3월~2021년8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보기에서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보 기
① 평일 성인 보호자 없이 나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있어야 하는 것
②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를 제출하는 것
③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놀이 활동, 모임, 여행 등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
④ 인터넷 사용 및 게임, SNS활동, TV보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
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계속 걱정하며 보내야 하는 것
⑥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게 변화되는 것
⑦ 부모님 사이에 혹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것
⑧ 친구들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것
⑨ 집안에서의 오랜 생활로 답답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
⑩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35. 코로나19 발생이후(2020년3월~2021년8월) 최근 1개월간 다음의 각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응답해주세요. [각 항목별 1개씩 선택]

항목	전혀 힘들지 않음	힘들지 않음	보통	많이 힘들	매우 많이 힘들
① 공부문제	1	2	3	4	5
② 친구문제	1	2	3	4	5
③ 가족문제	1	2	3	4	5
④ 외모문제	1	2	3	4	5
⑤ 경제적 문제	1	2	3	4	5
⑥ 코로나 문제	1	2	3	4	5

36. 코로나19 발생(2020년3월~2021년8월)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마음을 나이지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가장 많이 하였나요? [하나만 선택]

- ①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없음
- ② 부모님이나 성인 가족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기
- ③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거나 친구랑 다른 이야기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기
- ④ 재미있는 드라마나 유튜브, 영화 보기, SNS활동하기
- ⑤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하기
- ⑥ 취미활동이나 운동, 산책하기
- ⑦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해서 고민 상담 받기
- ⑧ 기관이나 센터 등을 통해 심리 안정 및 고민 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 ⑨ 딱히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있기
- ⑩ 기타 ()

37. 다음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응답해주시시오. [3순위까지 필수 선택]

보기
① 위생물품이나 안전한 장소 지원해주기 ② 급식 및 도시락 지원해주기 ③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인력, 시스템, 프로그램 등 지원해주기 ④ 휴식하거나 놀이하기 위한 장소와 도구 지원해주기 ⑤ 아동 눈높이 맞춤형 재난 관련 정보 제공해주기 ⑥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난 교육 강화해주기 ⑦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해주기 ⑧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마련해주기 ⑨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마련해주기 ⑩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38.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이용했던 기관을 선택하시오? [모두 선택]

- ① 학원
- ② 예체능학원(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 ③ 지역아동센터
- ④ 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 아카데미)
- ⑤ 종합사회복지관
- ⑥ 사회서비스(바우처)
- ⑦ 공부방
- ⑧ 마을도서관
- ⑨ 이용했던 기관이 없다
- ⑩ 기타()

-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